

제316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6월14일(금)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법안심사 소위원회장 개선의 건
3. 현안보고
 - 가. 교육부
 -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대응
 - 영훈 초·중학교 기타 국제중 입시부정 관리감독 실태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책
 - 나. 문화체육관광부
 - 태권도 관련 현안사항
 -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관련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관련
 - 국민 방문기간 중 해외문화원의 역할과 위기관리 역량점검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
2. 법안심사 소위원회장 개선의 건 2
 - 간사(김희정) 인사 2
3. 현안보고 5
 - 가. 교육부
 -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대응
 - 영훈 초·중학교 기타 국제중 입시부정 관리감독 실태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책
 - 나. 문화체육관광부
 - 태권도 관련 현안사항
 -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관련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관련
 - 국민 방문기간 중 해외문화원의 역할과 위기관리 역량점검

(10시10분 개의)

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신학용**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새누리당의 김세연 간사님이 당내의 중책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간사를 사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새로 추천해 주신 김희정 위원님을 새누리당 간사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안심사 소위원장 개선의 건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안심사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김세연 위원님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아 오셨습시다만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서 새로 새누리당 간사님으로 선임되신 김희정 위원님을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 위원 간단히 의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우리 교문위가 지난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상임위에 대한 국민이나 국회에서 관심이 높다는 것이고, 현재 알다시피 우리 교문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 한 419건입니다. 교육부 법안이 252건, 문체부와 문화재청 법안이 합산해서 한 167건 정도 됩니다. 이 많은 법안을 이후에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간사님으로 선임이 되신 김희정 위원님께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이번에 맡으신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법안을 우리가 계속 미루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18대 국회에서 교문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임위로 지목이 됐는데 이번 19대 들어서는 얼마나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심사는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내놓은 법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기재위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누어 가

지고 정말 열심히들 하거든요. 우리도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후에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일하는 국회의 상을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서는 법안소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개로 분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 문제는 이미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대로 하고 다시 한번 더 여야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박홍근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희정) 인사

(10시12분)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김희정 간사님 인사말씀 해 주셔야지요.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여당 간사를 맡게 된 부산 연제구 지역구의 김희정입니다.

앞서 고생하셨던 김세연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홍근 위원님 걱정 말씀 있으셨습시다만 18대에는 교육 관련된 상임위 또 19대에는 문화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진척도가 느렸던 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유기홍 간사님과 함께 뜻을 잘 합쳐서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아주 중심이 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희정 간사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간단히 해 주세요.

○**배재정 위원** 현안보고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문화위가 상당히 비대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교육부 현안보고를 받고 또 오후에 문화부를 하는 것이 일정상 상당히 좀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문방위에 제가 있었습시다라는 문방위의 경우에도 문화부와 방통위를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상례라고 알고 있고, 교육과 문화도 각각 덩치가 큰 부처이기 때문에 이틀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현안보고에 있어서 문방위에서는 문화 분야 현안업무보고에 문화재청 보고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재청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문화재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높고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문화재청장을 꼭 불러 주셔서 오후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 문제는 여야 간사님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현안보고 내용에 안 걸리더라도 산하 외청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김희정 간사님, 유기홍 간사님 그것을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보고를 오늘 하루를 잡은 것은 2월 국회, 4월 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현안보고로 한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틀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아주 합리적이라고 보고 여야 간사님과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위원장 신학용**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김상희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에 다수의 위원들께서 영훈중학교, 대원중학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자료요구 했는데요. 지금 보도자료 배포 시에 제출했던 보도자료만 주었고 그리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대원중학교의 경우에만 43페이지짜리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이 500페이지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 원본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이것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전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제출을 받아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훈중학교, 대원국제중학교와 관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있는 자료니까요, 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학용** 교육부장관님, 그 감사결과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겁니까? 갖고 있는 것 없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저희는 갖고 있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안 내면 교육부에다 좀 제출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교육감님, 그 자료, 보고서 뭐 이미 다 밝혀진 건데 왜 제출을……

○**참고인 문용린** 글썄,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의 짧은 소견과 또 저희 감사관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원중학교인 경우는 감사 그 자체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통째로 드렸습니다.

영훈중학교는 저희들이 공공감사를 시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의 판단에 의하면 감사자료가 정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공공감사법

에 의해서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가 된 사항을 저희들이 정황증거만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람들의 실제 성명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그런 법의 침해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서 그것이 법과 상관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구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정황만이 담겨져 있는 학부모의 성함, 교사들의 성함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감사 전체 기록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원래 국회법에는 모든 것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조항은 한두 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하신 얘기를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간사님께서 좀 상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야 간사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간사님 협의하기 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감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청이 있는 후에 대원중학교의 경우에는 43페이지의 보고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원중이나 영훈중학교가 똑같이 9페이지짜리 보도자료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요약된, 대원중학교 경우 43페이지가 나왔는데 영훈중학교는 그대로 9페이지 보도자료로 끝났고요. 그리고 실제 감사결과보고서가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생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약간의 조치를,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국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요구한 것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케이스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고 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여러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케이스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도저히, 이번에 이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은 그전에 감사결과보고서 자료 제출했던 것하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자료들을.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신학용 잠깐만요, 지금 어떤든 간에 국회에서 제출을 꼭 해야 된다면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될 경우는 또 다음에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것은 당분간 여야 간사에게 좀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학용 무슨 건입니까?

○우원식 위원 지금 그 건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이 자료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하자고 그러시는데……

○위원장 신학용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문제를 갖고 내야만 하면 내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금방 내겠다고 그랬으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여야 간사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회의 권한에 의해서,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내라는 것이고요. 수사에 들어가서 꼭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는 합니다만,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부에다가 자료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야 합의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서 제출 요구하고 있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양식을 믿어야지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개인 사생활 보호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마구 공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좀 가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

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고 전달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고 제출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국회법에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은 다음으로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분만 하면 금방 내주시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또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하든지 할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항은.

○**김태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신학용** 또 하시겠어요?

○**김태년 위원**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른 겁니까?

○**김태년 위원** 개인정보보호는 자료제출의 불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교육감님, 그거는 뭐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합의해 놓은 것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가 지금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아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교문위원회가 아주 거대 부처 교육부하고 문체부 또 이 관련된 소관 기관들, 부처와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합의해서 운영하는 것 보면 오전에 교육부, 오후에 문체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학용** 예.

○**김태년 위원** 오전에 하면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보고하고 나면 한 30분, 11시 될 거고 언제…… 지금 위원도 늘어나 가지고 30명이에요, 위원도 여섯 분이나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이 현안질의를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문체부와 산하기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형식화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나누었어야지요. 최소한 이틀에 걸쳐서 했어야지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의사일정 합의하실 때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합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 문제는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유감의 표시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월·4월 보고를 다, 두 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안보고로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로 잡았다는 말씀, 앞으로는 더욱더, 하루 더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 낸 것으로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요.

오늘 현안보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소관 4건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건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교육부 소관 현안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문체부 소관 현안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안보고

가. 교육부

-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대응
- 영훈 초·중학교 기타 국제중 입시부정 관리감독 실태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책

나. 문화체육관광부

- 태권도 관련 현안사항
-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관련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관련
- 국민 방문기간 중 해외문화원의 역할과 위기관리 역량점검

(10시29분)

○**위원장 신학용**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전에는 교육부 소관 현안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 영훈 초·중학교 기타 국제중 입시부정 관리감독 실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책, 이상 4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훈초·중학교 입시부정과 관련하여서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조효숙 영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동식 영훈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배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부 서남수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실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첫째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 둘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 셋째 영훈중 등 국제중 입시부정 관리감독 대책, 마지막으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 순으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꿈과 끼를 찾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28일 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입일정은 올 2학기부터 42개 연구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은 희망학교를 운영하며 2016년 전면 실시 때에는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은 자유학기 동안에는 진로학습, 진로상담 및 검사, 진로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2회 이상의 진로체험 또는 진로캠프에 참여하여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직접 확인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토론,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의 수업방식을 강화하고 협동교수, 협력학습, 블록타임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기말 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학교별로 학생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수업지도에 활용하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 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고 5쪽과 6쪽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를 예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체험 인프라 확보 및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인프라의 소관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금융권 등 공공·민간 기관과의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시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지자체, 지역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매달 1회씩 그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학교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강화하겠습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상황에 맞는 농산어촌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은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진로체험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일본 교과서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26일, 총 21종의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는데, 역사 교과서 12종 중 9종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으나 태평양 전쟁 말기 강제징용, 강제징병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등 역사 인식이 퇴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의 대응 기본방향은 일본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해외홍보 등 대외 대응과 더불어 역사·독도교육 강화 등 대내 대응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부는 국내외 학계·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및 독도 대응연구를 강화하고 한일 역사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3기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독도 등 일본 역사왜곡 대응자료를 다국어로 개발하여 해외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영문판 대응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일본군 위안부 교육자료 일본어판을 일본 현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독도교육 및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영훈중 등 국제중학교 입시부정 관리감독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경과입니다.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감사 결과 입시부정 등 비리가 발견되어 관련자를 징계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입시부정 실태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중 입시부정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훈·대원국제중 지정취소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중 지정취소는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문절차와 우리 부 협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취소를 협의하여 올 경우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어제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14학년도에는 서류전형에서 서술평가를 폐지하고 체크리스트만으로 평가하여 객관성을 강화하였고, 특히 2015학년도에는 서류전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원하는 지원자는 모두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는 이번 국제중학교 입시비리를 계기로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입시비리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입시 종료 후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중 입시부정 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사태와 같은 입시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그동안 학교급식, 학교폭력 대책 마련 등 새로운 교육수요의 급증으로 많은 수의 학교회계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매년

학년 말 계약해지 등으로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회계 직원은 14만 989명으로 초등학교에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 중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약 50여 종 이상의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직종별 업무도 상이합니다. 직종 중 급식지원 직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직종별 임금 현황은 2005~2013년 간 학교회계 직원의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5.6%~7.6%로 추이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종별 연봉기준일수가 달라 보수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시책사업 등에 의해 임금이 책정되어 적용받는 일부 직종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방학이라는 특수성으로 방학 중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준일수는 시·도 교육청별로 다양하며 그 이유는 교육청별 처우개선을 위해 기준일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여금 및 수당에 있어서도 교육청별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경력을 급여에 반영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장기근무 가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비율은 71.2%로 고용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쟁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정책 측면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2014년까지 전원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수요의 변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시도별 연봉기준일수 및 처우개선 수당이 상이하여 어려운 점이 많

으나 지방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적인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초·중학교 강사에 대해서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꼭 필요한 인력이므로 학교회계직원과 구별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정진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정진후 위원님.

○정진후 위원 장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영훈중학교하고 대원국제중학교 관련해서요. 전학·편입학 전형에 있어 접수 집계 현황 그다음에 최종합격자 명단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는데, 야당 의원들의 공통자료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제출했는데 영훈과 대원은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검토해 본 결과 전학이나 편입학 학생들의 부모가 사전에 기부금을 낸 정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전학·편입학 전형 접수 집계 현황,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학교발전기금 납입증명서 사본 이것을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발전기금 납입증명서 이것은 사실상 에듀파인(EDUFINE)에 입력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부를 이렇게 쉽게, 발전기금을 낸 영수증 이런 것들을 쉽게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금방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2011~2013년 것까지만 뽑아 주세요. 그 이전 것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빨리 좀 주시면 질의하고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영훈중, 대원중……

○참고인 정동식 영훈국제중학교장 정동식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발전기금 납입증명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부 지금 압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영수증철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제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후 위원 에듀파인 자체로 압수가 됐나요?

○참고인 정동식 아무튼 PC 저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납입을 하겠다고, 발전기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진후 위원 예.

○참고인 정동식 그런 부분은 서류철로 보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철들이 이미 전부 검찰에 있는……

○정진후 위원 검찰에 지금 압수돼 있다?

○참고인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다시 확인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5분씩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과갑 박인숙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역사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인식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를 다 리뷰를 해 봤거든요, 6·25전쟁이 어떻게 기술됐나. 일단 그 어휘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에 서울신문하고 입시전문업체 진학사에서 500여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6·25전쟁이 ‘북침이다’ 하는 게 69%, 약 70%였습니다. 물론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라고 믿는 학생이 70%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어휘에 굉장히 혼란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남침’이 남쪽이 침략한 거냐, 북쪽이 내려온 거냐, 아주 헷갈리는데 말을 보면 ‘6·25전쟁’이라는 말이 있고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냥 ‘Korean War’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혼란스러운데, '6·25 남침전쟁'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학교 교과서 28개를 보니까 '6·25전쟁'이라고 되어 있는 게 24개고 4개의 교과서에 그냥 '한국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것을 '6·25 남침전쟁'이라고 말을 통일을 하면 어떨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국경일이나 이런 관계 법령에서도 전부 '6·25전쟁일'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가 어디를 침략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남침전쟁'이라고.

그다음에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부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그것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학교감시직 경비직원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저희한테 알려 줬거든요. 저희 의원실로 알려 줘서 저희도 알게 돼서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나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자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학교에 소위 수위라고 부르는 그런 직종이 있지요? 회계직원도 아니고 대개 70세 넘은 고령 분들이 한다고 합니다. 감시직이라고 출근시간이 오후 4시 반이고 밤을 새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보면 너무나 열악한 게 그러니까 16시간을 일을 하는데 거기서 4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빼는데 잠을 잘 수도 없다고 그러합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CCTV 보고 전화 오는 것 보고 새벽에는 또 급식차 오고 그래서 잠도 하나도 못 자는데 돈 계산은 그것 다 빼고 하루에 평일은 4시간, 휴일은 6시간만 계산을 해서 한 달 받는 게 7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는 연휴라든가 공휴일 이럴 때도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번의 연휴, 6월 달에 보면 6월 5일 수요일에 들어가서 월요일 아침에 나와요. 거의 5일을 연속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노동법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서가 이게 전부 합법이

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게 서울지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에서 나온 승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착취를 한 게 전부 합법이라는 것 이게 문제고 교육부에서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그래서 '근로기준법 63조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4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직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열악한 감시직 경비직원의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한 1만 1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비정규직 문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계속 관심 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는데 하면 할수록……

○**박인숙 위원** 예, 제가 5초 남아서 한 말씀만 더 하는데, 지금 일본 우경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베 총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국제적인 석상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주세요.

그런데 아까 대응책에 학문적 대응, 홍보, 역사 강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역사는 물론 강화를 해야 되지만 장관님도 장관이시니까 국제적인 행사에 가서 좀 발언을 세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영훈중학교 문제라든가 자유학기제 그것도 너무 급하게, 형평성이 있으니까…… 학교회계직 쟁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식 위원** 위원식입니다.

5분밖에 안 돼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밤부터 29일 중앙 언론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들의 입학 부정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5월 30일에 그 아들이 영훈국제중을 자퇴했습니다.

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학교 교장님?

앉아서 하셔도 돼요.

○**참고인 정동식**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식 위원** 아,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인 정동식** 예, 하여튼 본교의 사안으로 이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식 위원** 잠깐만요. 앉으세요.

○**참고인 정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니까요, 추천서 점수 만점자가 합격생 6명 중에 6명 모두 영훈초등학교 출신이고요. 자기개발계획서와 교사추천서 모두 만점 받은 합격생 3명 중의 2명이 영훈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배자 합격자 중에 이 씨 성이 2명이 있어서 김형태 서울시의원이 그중의 한 이 씨 성의 부모를 만났더니 거기는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여서 아니고 나머지 1명이 이재용 씨 아들 맞지요?

○**참고인 정동식** 지금 그 부분은……

○**위원식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지금 현재 고발돼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식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식 위원** 자, 그렇고요. 더 얘기 들으세요.

그 1명의 이 씨 성을 가진 학생이 성적이 72위였어요. 그런데 합격자 16명 중에 15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보면 추천서에서 만점을 주지 않으면 합격될 수 없는 점수입니다. 16등한 김 모 학생도 성적이 76위였는데 16등으로 합격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모 학생뿐 아니라 16등으로 합격한 김 모 학생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 학교에 부임한 날짜가……

○**위원식 위원** 아니, 교장이면 그런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참고인 정동식** 예,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 이후에 바로 검찰 수사가 있어서……

○**위원식 위원** 아니, 도대체 교장선생님이 교육자로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과 성적이 50분의 49.5, 출석일이 5분의 5, 자기개발계획서가 15분의 14.6 이렇게 3개 평가요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 추천서 점수에서 아주 비상식적인 5.099999점을 받아서 140위로 탈락했어요.

이것도 부정 아닌가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합격할 아이는 떨어뜨리고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추천서나 자기개발계획서에서 만점을 줘 가지고, 영훈초등학교 출신이고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만점을 줘서 개는 합격시키고, 이게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고인 정동식**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식 위원** 그러니까 부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고인 정동식** 그 부정의 정황 때문에 지금 고발이 됐고 일부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위원식 위원** 어떤 보고를 받았어요?

○**참고인 정동식** 예?

○**위원식 위원** 부정한 일을 어떤 보고를 받았냐고요?

○**참고인 정동식** 사실은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교사들이 저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식 위원** 그래서 아직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참고인 정동식**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

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원식 위원** 아니, 파악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본인이 학교를 자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정한 일을 보고받았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지금 그 부분도 언론에 난 것처럼 채점을 할 때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개봉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원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을 조작하고 부정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애는 되고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애가 있어요. 그 떨어진 아이와 학부모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참고인 정동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개선된 입시전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학교가 입시 관련해서 전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 경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학교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장관 소감 마지막으로 들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께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물론 보도자료는 국회를 위해서 만든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를 뺀 요약본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문용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만일 부족하다면 새로 요청할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단순한 요약본이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 성실하게……

○**위원장 신학용** 아, 당연하지요.

교육감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라고 일단 조건을 달았지만 제외하고 최대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인 문용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다.

먼저 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현충일이나 야스쿠니 신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인식을 많이 못 하는 자료, 표본조사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역사교과서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떤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역사는 우리 역사대로 기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교과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신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새 역사교과서 검수가 진행 중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수 중인 역사교과서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무 내용도 모르는 교학사 교과서가 마치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같이 낙인을 찍고 있는 것 같은,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논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정 중인 교학사의 교과서, 속 시원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가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시는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한국사교과서 검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 검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간에서 새로운 한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나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용 위원장, 김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식 위원 여하튼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왜곡이 되고 국내에서 이런 것조차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교육부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밝혀져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혼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충일에 대한, “야스쿠니 신사가 쟈트맨?”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나,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은 목소리를 내서 우리 역사교과서가 언제……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게 정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같은 민족끼리 역사 인식이 다 다르냐 이거예요. 왜 역사 인식이 다를까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학생들을 뭐라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교육을 하는 수장으로서 장관님도 책임이 있으시고, 문용린 교육감님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경기 고양 일산동구 지역구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까 국제중학교 입시 부정과 관련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교육청에서 발표한 국제중

대책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근본적인 대책, 정부 여당에서 지정취소나 법률 개정 같은 것을 그동안에 이야기해 왔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자료도 제출 못 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하신다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교육청에서 발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가 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발표를 하셨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시 부정뿐만이 아니라 영훈국제중학교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법적인 위반이 있었음을 제가 교육감님과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특성화중학교는 아까 국제중학교 개요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육감님, 이게 별도의 학교 제도가 아니고 특성화중학교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가 맞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맞습니다.

○유은혜 위원 자료 왜 안 올라오지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 의하면 특성화중학교는 학생선발권 외에 별도의 특례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8년 10월 공정택 전 교육감이 계셨던 그 시절에 영훈중, 대원중이 같은 날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원국제중학교는 2009년 2월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유은혜 위원 그런데 영훈국제중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안 됐습니다.

○유은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도, 지금 저기 보시면 영훈국제중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참고인 문용린 예.

○**유은혜 위원** 초·중등교육법 61조1항을 보시면 자율학교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과용 도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율학교는 특례 적용을 받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유은혜 위원** 대원국제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영훈국제중학교에서도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해서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가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것을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학교운영 특례에 관한 조항에 교과용 도서 사용은 대원국제중은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마는 영훈국제중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만 하는 학교입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맞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영훈국제중학교가 그동안에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문용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은 영훈중학교는 검인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외국의 교과서를 부교재로 사용한다……

○**유은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문용린**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유은혜 위원**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저희들한테 자율학교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다행히……

○**유은혜 위원** 자율학교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가 이렇게 교과용 도서에 관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문용린** 특례를 적용받기보다 본인들이 검인정교과서를 쓴다고 공식적으로 얘기……

○**유은혜 위원** 검인정교과서는 썼지만 지금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한 것 아닙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그것은 부교재로 사용한다

고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자율학교로 지정받지 않은 모든 학교에서 부교재로 미국 교과서를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참고인 문용린** 예, 아마 그것은 선생님이 따라 자율적으로 주교재는 검인정을 쓰면서 수업시간에 여러 자료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요 교육감님, 그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요 국제중학교가 특성화학교로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유은혜 위원** 그리고 그것도 ‘국제중학교’로 명칭을 달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유은혜 위원** 그러면 영훈국제중학교는 대원국제중학교처럼 자율학교 신청을 해서 예외조항 특례 적용을 받도록 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성화중학교, 특히 국제중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말씀을 여러 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검찰 압수수색 전에도 저희가 민주당 전체 교문위 위원 이름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장선생님.

○**참고인 정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발전기금 접수대장 목록,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 검찰 압수수색 전에는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말씀드리면요……

○**유은혜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정동식** 저희들은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하려고 사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자료가 국회의원님 자료 말고 시의원님 자료가 엄청 많다 보니까 학교가 만들어 내는 자료 수가 수백 가지가 돼서 사실은 어떤 자료가 갖고 어떤 자료가 안 갖고 까지도 상황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됐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은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참고인 정동식**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유은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충분히 질의를 못 합니다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특성화학교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라는 제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를 보니까 같은 조항이 있지만 지정 취소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은혜 위원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똑같은 적용을 받는데요, 5년이 되기 이전에 학교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학교 신청……

○유은혜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은혜 위원 영훈국제중학교의 경우 입시 부정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초·중등교육법을 불법적으로 위반해 왔었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취소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徐相箕 委員 서상기 위원입니다.

영훈중학교 교장선생님,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참고인 정동식 예.

○徐相箕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차피 사법기관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은 학교를 없애자, 또 추첨으로 선발하자, 이런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관련자들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부정이 발견됐다고 해서 학교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추첨으로 선발하겠다는 것도 아주 성급하고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부정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나 그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른들이 잘못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가 없애지고 올 데 갈 데 없게 만든다, 그것은 아주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학교 없애자’ ‘추첨으로 선발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나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본적으로 입시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책임 있는 관계자를 문책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선으로 굳히면 되는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모든 국제중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가 좀 특별한 학교로 인식이 돼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을……

○徐相箕 委員 하여튼 그것을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선량한 학부모의 자제나 선량한 학생들을 생각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저는……

○徐相箕 委員 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빨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법부의 판단이나 문제의 진상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 문용린 예, 알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교육감님도 교육기관에 오래 계셨는데 전원 추첨하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성급하게 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시고 자유학기제,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뭔가 끼를 키우고 진로 탐색을 하는 이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한국의 직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한 1만 6000 정도……

○**徐相箕 委員**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상……

○**徐相箕 委員** 그런데 ‘진로체험’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徐相箕 委員** 그런데 이 진로체험이 분야에 따라서 당장 아주 상당히 재미난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 진로체험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분야, 이게 다양한데 잘못하면 진로체험 이 과정 때문에 애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잘못 오도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또 이게 목적이라면 제가 보기에 한 학기로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애하는 시간이 우리가 한 학기에 10시간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두 학기에 5시간씩 해서 하는 게 좋고 또 다섯 학기에 2시간씩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열 학기 동안에 1시간씩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몰아서 체험을 하게 하는 그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원래의 취지하고 달리 꿈과 끼를 키워 주는 것이 아니고 꿈과 끼를 오도하게 만드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잘못 주입시키는 그런 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진로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전체 과정에서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중에 한 부분으로서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작용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서상기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徐相箕 委員** 예.

○**위원장대리 김희정**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을의 민주당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윤관석 위원입니다.

국제중학교 말이 많아서 4년 만에 판도라 상자를 열어 보니까 특권층 욕심 대물림하고 공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비리종합세트인 것으로 지

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한숨과 상실감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이번에 보면 의혹의 핵심은 뒷돈 거래인데 감사 결과에서 빠졌어요.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이라든지 전·편입학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 입학자 부모님 명단이 발전기금 납부자 명단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감사에서 핵심이 뒷돈 거래인데 이게 왜 빠졌지요? 교육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 문용린** 아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윤관석 위원** 왜 없었지요?

○**참고인 문용린** 아마 저희들이 공공감사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 공문서라든지 또 직무 관련된 사람만을……

○**윤관석 위원** 아니, 학교발전기금 납부 명단도 있는데 그것도 안 냈잖아요? 왜 그것을 못 해요? 교육감께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지금 밖에서는 소문이 1억 내면 들어간다고 해서 학생 이름이 ‘1억’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할 정도로, 그것 다 들어 보셨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신문에 몇 번 되는 것을 봤습니다.

○**윤관석 위원** 결국은 특혜 입학을 시키면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뒷돈 거래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못 했다는 겁니다, 안 한 겁니까?

○**참고인 문용린** 우리 감사관께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제가 여쭙 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결국은 사회적배려자 전형에서 3명 탈락시키고 3명 합격시켰다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많은 질타를 하셨지만 자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자료, 패널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3년도 영훈중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점수집계 표인데 성적 조작으로 합격된 3인의 정황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14위·15위·16위, 이 세 분은 주관적 평가 영역에서 15점, 30점을 다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자제로 추정되는 분이 교과 성적에

서는 72위였는데 여기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합격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변명이 개인 보호로 되는 거예요?

○참고인 문용린 아마 보도자료나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분명히 일반전형에서 여섯 사람의 성적 조작이 확인이 됐고 또 사배자 전형에서……

○윤관석 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3명이 공교롭게도 주관적 영역은 다 만점이고 객관적 평가 영역에서 하위 순위거든요. 그러면 3명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 억울한 분도, 피해도 조치를 해 줘야 되고, 그분들의 어려움은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빨리 성적을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검찰 결과에만 미뤄 놓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울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참고인 문용린 여섯 사람의 조작과 관련해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그런 조작을 했는지 하는 것은 솔직히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아홉 사람에 대한 성적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마는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그것을 했는지는 검찰한테……

○윤관석 위원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뒷돈 거래 의혹을 갖다가 감사를 했어야 되고 그것의 인과관계를 밝혔어야지요. 지금 아주 불충분하게 감사한 것 아닙니까?

○참고인 문용린 아마 뒷돈 거래한 것은 결국에……

○윤관석 위원 아니, 그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그런 점에서는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력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됐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전원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겠다고든지 이런 대책도 안 되는 것을 서둘러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정 철회를 피해 보려는 꼼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육감하고 장관께서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선부른 대책으로 되겠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저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시 일정은 대학의 경우에는 입시 변화가 있을 경우에 3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윤관석 위원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국

제중에 대해서……

○참고인 문용린 그래서 국제중도 입시 변화를 적어도……

○윤관석 위원 자,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윤관석 위원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문용린 폐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윤관석 위원 결과 보고 하시려고요?

○참고인 문용린 아닙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고요.

○참고인 문용린 학교를……

○윤관석 위원 됐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해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추첨제에 의한 입시 전형방법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의미가……

○윤관석 위원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수사 결과가 전부 다 나온 뒤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토……

○윤관석 위원 모든 방법인데, 그중에 폐지도 있고 개선책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결과가 나와 보면 어느 선까지 저희가 검토해야 될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됐습니다.

30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요새 집중이수제라고……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집중이수제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윤관석 위원 역사교육도 집중이수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학기에 반만 년 역사 수업을 해 치우는 꼴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교육에 부실함이 나타나서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대중매체를 통해 역사를 습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런 데서 역사 공부를, 일베—일간 베스트의 준말이지요—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

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표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우편향 일베 용어 모음입니다. ‘민주화’ ‘홍어무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요,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집중이수제는 실제로 교육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그것은 하여튼 금년 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장관님,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도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님 몇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또 지금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나 계획은 있으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 진행 중인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저희까지도 확인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정교과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하고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차제에, 역사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잘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이래 갖고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많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역사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차세대 어린이들한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기회에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공휴일, 빨간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6·25 얘기가 나왔는데 6·25뿐만 아니라, 현충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경

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혹 제가 리포트를 국경일이 무엇인지 다 자필로 써 오라고 낸 적도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다는 것, 장관님 들어 보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학교에 유해업소가 4만 개가 넘는데 그것을 설치도 할 수 있고 해체도 할 수 있는 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혹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이 조사를 해서 제재를 받은 곳이 불과 1000여 개 조금 더 되는 그런 업소만 있다면 그 4만 개 넘는 유해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학교 주변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시도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도 듣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그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해서 만들어 가실 건지 혹시 구상이 있으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학교정화구역 설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지만 각 지역별로 사정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검토하는 그런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교육부에서 자료 받을 때도 그 대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기준점이, 너무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상황을, 현장이나 그 지역을 고려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장관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아이들의 장애, 교육,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보셨을 때 그것을 전국을 똑같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십시오’ 지난번에 폭력 문제가 되고 그럴 때도 사실은 똑같은 기준점을 마련해 가지고 각 학교가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예를 들면 충북이나 이런 데는 굉장

히 아주 개선도 하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지부동으로 단 0.1%도 움직이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아이들한테 정말 기준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 주변, 부탁해서, 미안해서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부 차원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런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점을 뒤서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각 시도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이번에 14만 정도를 차근차근해서 앞으로 정규직화하려고 하시는데 보수체계가, 사실 재정적인 게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살립하시느라고 어렵지만 조리사 같은 부분은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보수체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의 보수 문제도 한번 살펴보셔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때 한번 검토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의 이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 위원** 지금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동아시아 역사 왜곡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용섭 위원** 또 우리 학생들의 역사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제안했던 게, 저 말고 많은 의원들이 제안했던 것이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총리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다만, 어렵지만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써 드렸을 겁니다.

왜 어렵고, 어떻게 한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 이것을 필수화하는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입제도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커

서.....

○**이용섭 위원** 간략히.

○**교육부장관 서남수** 학생들한테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데 그만큼 부담은 더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 보게 한다고 해서 역사 인식이 올라가느냐, 좀 더 아이들이 바른 역사에 대한.....

○**이용섭 위원** 제가 좀 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외우는 것 가지고 역사의식이나 정의감이나 도덕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선 지식이 먼저 전제가 돼야지요. 한국사를 고등학교 1학기 때 배우고는 있지만 수능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부담이 많다고 하지만 수학 공식 하나 푸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아는, 역사를 더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부담이 많다면 수학, 국어..... 국어는 놔두더라도 영어 같은 것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담이 많다면 한 과목만 보지 뭐하려고 세 과목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의 문제는 얘기가 안 된다.....

다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일 날 시험을 많이 보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과목이 많으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급수를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수능을 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부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서 국사 교육 강화 방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우리 교육부장관을 위해서도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5·18은 역사적으로 지금도 대립되는 이슈입니까, 역사적으로·정치적으로 정립된 이슈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확실하게 정립된 그런.....

○**이용섭 위원** 정립된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5·16은 군사정변입니까, 구국의 혁명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5·16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교과서에 수록된 그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다른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섭 위원** 군사정변이라는 얘기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뭐가 겁이 나서 아이들한테는 교과서에서 군사정변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편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확실히 앞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이런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이 배워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학사의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한국 사학회이지요? 뉴라이트들이 주로 이끌고 있는 한국 사학회 회장과 교과서위원장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이명희 교수라는 분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가서도 ‘친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그리고 역사학자들이나 교수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혹시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 받고 죽음을 문턱에 뒀을 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께서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 읽어 보셨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

○**이용섭 위원** 제가 일정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니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니가 나라를 위해 여기에 이른즉 만 맘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머니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 어머니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와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강점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안겨 준 일제를 찬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교과서 검정은 저희가 마련한 여러 가지 검정 기준이나 집필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용섭 위원** 지금 국제중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쇠뿔 뽑다가 소 잡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제중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5학년도부터 지원자 전원을 추첨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초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학습능력이 있고 잠재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중을 그렇게 추첨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외국 생활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거나 이렇게 국제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이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다.

영훈중학교 교장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이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 오히려 교장선생님을 옹호하고 교직원들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훈중학교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에게 이러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영훈중학교 9명에 대한 성적 조작은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참고인 정동식 예, 그 부분……

○정진후 위원 다만 성적 조작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못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인정하시지요?

○참고인 정동식 예.

○정진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학생들 이렇게 죽 살펴봤더니, 자료 제출 안 하고 계시지만 제가 확인한 자료는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이렇게 냈고 그 대가로 영훈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럴 만한 정황증거들을 포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정동식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진후 위원 확인을 못 했다, 모든 자료를 학교가 가지고 있었고 학교가 시행을 했는데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영훈중학교 합격생 중 학교발전기금 기부현황입니다.

제가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익명, A·B·C로 처리했습니다.

기부자들입니다. A라고 하는 학생의 어머니, B라고 하는 학생의 아버지, C라고 하는 학생의 아버지와 외조부 그다음에 D라고 하는 학생의 아버지가 기부금을 냈어요.

(김희정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보십시오. 노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B라고 하는 학생의 아버지가 1000만 원을 냈는데 일자가 2011년 8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입학연도는 2012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입학하기 몇 개월 전에, 최소한 반 년 전에 먼저 기부금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D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학생도 2012년 8월 31일 날 기부금을 냈습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처리된 날짜입니다. 그런데 입학은 2013년 3월 1일자로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까요? 영훈중학교에 있는 모든 회계장부는 이렇게 잘못 작성된 겁니까? 그러면 학교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돈을 냈고 그 대가로 입학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지요. 이 학생들, 아까 문제가 됐던 B학생과 D학생입니다. 입학전형, 다자녀입니다. 교과성적 순위 34위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그다음에 D학생은 76위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교과성적은 그런데 자기개발계획서 만점 15점에 한 학생은 14.8점, 한 학생은 1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추천서 30점 만점에 둘 다 30점을 받았어요.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에 대해서 최고의 점수를 줘서 교과성적에 있어서 삼십몇위, 칠십몇위 하던 학생을 입학시킨 거예요. 누가? 입학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기부금을 냈던 학부모의 자녀를.

이런데도 돈을 받고 입학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붙여 붙까요? 그러면 훨씬 더 명쾌해집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참고인 정동식 지금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후 위원 수사라니요. 수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시행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어떤 기업의 간부의 자녀는, 기업에서 저도 기자들에게 요구했다는 보도를 듣고 그 학생의 자녀가 15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이 부정입학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참고인 정동식 ……

○정진후 위원 대답을 못 하시는구먼요.

교육감님, 이런 것은 교육청 감사에서 충분히 인지될 수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히 인지될 수 있었는데 왜 교육청 감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되고 검찰 조사로 넘어갔지요? 이것은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교육감님이 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을 건데 결과 발표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상 영훈국제중학교를 감쌌던 감사결과 아닙니까?

○참고인 문용린 제가 감사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전기금을 낸 학부모가 존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서 계좌추적을 확실히 못 했다고 합니다.

○정진후 위원 아니 교육감님, 계좌추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영수증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영수증에 적힌 날짜와 학생의 입학날짜가 현격하게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전기금을 냈는지에 대한, 날짜에 낸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날짜를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정진후 위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훈국제중학교 문제가 나오니까 어제 서둘러서 공개추첨방식으로 바꾸겠다…… 정말 국민들 앞에서 교육자로서 최소한도 당당하고 권위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중학교가 무슨 로또 추첨입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식을 낸다면, 그러면 국제중학교의 설립목적은 운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운을 갈고담는 학교입니까? 추첨방식이라니요.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과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인지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지금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 문제로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영훈중학교 이전에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부산에 공립으로 국제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설립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가요? 조기유학을 방지하고 글로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부장관님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맞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립입니다. 학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제중학교를 우리 정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기도에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또 2개 만들었습니다. 3개 다 사립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무엇을 했기에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다 떠들고 난리입니까?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검찰에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재벌의 자녀라고 태어난 게 죄가 되어서 이 아이가 받을 상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벌의 자식도 자식이고 가난한 집 자식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이 아이가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상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른들의 잘못으로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줍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도 정말 우리 어른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더욱 앞서서 나무라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언론이 떠들지를 않는답니다. 왜? 자녀들 생각하고 자라는 아이들 생각해서 조용히 조용히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연히 책임 있는 자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교육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선발방식 문제 있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교육부에서 학교를 없애자, 교육청에서 추첨제로 하자,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듭니까?

특수목적에 맞는 운영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부입니다. 교육청입니다. 학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회에서 떠들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기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현영희 위원** 기부금 내는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규칙이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 규칙에 따라서 한 겁니까? 교장선생님, 물어보십시오.

○**참고인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벌써 설립 자체부터가 귀족학교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 조기유학 방지, 이것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기유학 안 했습니까? 조기유학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반성해야 됩니다. 정부도 반성해야 됩니다. 운영하시는 운영자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하여튼 이 문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최선을 다하지 말고요,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현영희 위원** 이번 교육부장관님께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학교를 없앨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고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영희 위원** 바로 없애실 겁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 계획 없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추첨제도 바로 실시할 겁니까, 내년부터?

○**참고인 문용린** 무슨 제도요? 추첨제요?

○**현영희 위원** 추첨.

○**참고인 문용린** 지금 기본계획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들이 대단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이런 입시문제가 대단히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추첨 중심으로 뽑을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중에서 국제중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에게 예고만 해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인 문용린** 예, 알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 자식이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世淵 委員** 장관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잠깐 질문드린 적 있지만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역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보다도……

○**金世淵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일제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백년보다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처음 듣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제가 심어 놓은 역사교육의 덫이 지금도 치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조속히 검토에 착수해서 개선에 꼭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관련해서 아일랜드의 사례를 아마 깊이 연구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아일랜드에서 몇 년 동안 자유학기제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던 전환학기제를 시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20여 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이게 한 40년 정도, 소규모였지만 처음 출발한 지는 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도가 숙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미국에서 정착되는 데 적어도 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입학사정관제가 좋은 취지로 출발한 것과는 달리 많은 부작용과 비판을 얻었던 것이 너무 빨리 시행하려고 했던 데서 비롯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자유학기제도 우리가 반드시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되 너무 단기간에 정착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구요.

특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이 함께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험교육이나 토론 및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바뀌려면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교원양성과정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점 잘 인식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金世淵 委員** 그런데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결과제로서, 이렇게 양성된 교원이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현재 추진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국제중 전환할 당시에, 2008년도 당시 공정책 서울교육감 관련한 이 상임위 회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고 또 2011년도 국감에서도 점검을 해 보니까 함께 전환되었던 대원국제중의 경우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장학금 지급 약속을 지키고 있었는데 영훈중학교는 그 당시에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결국에 이것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을 넘어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런 비리까지 나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중 인가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 중학교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나중에 기회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동시에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안이든 방금 말씀드렸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도가 숙성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그런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결코 폄훼해서는 안 되고 공과 과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든지 그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5·16군사정변이지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산업화의 성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어떤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다는 것도, 이 부분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숙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교과서 관련해서도 한쪽 방향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지배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으로 끝내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오늘 국제중학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관님, 장관님께서서는 국제중학교 문제가 이슈가 될 때 교육부에 근무하셨지요? 교육부 차관으로 계시지 않았나요, 2006년~2007년?

○**교육부장관 서남수** 2006년~2007년에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서울시 부감으로 계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6년 3월에 서울시교육청에 국제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참여정부 때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지요. 신청철회를 했지요, 그렇지요? 신청철회를 했는데 다시 2007년도에 또 이게 추진이 되기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과정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의 현재 이 사태는 예견된 사태였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또 빨리 터졌다, 예견되기는 했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그 당시에 2006년도부터 거기의 가장 중심에 계셨는데요, 그런 예견을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학교가 특권학교, 귀족학교 그리고 잘못하면 굉장히 부패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또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글로벌시대입니다. 아니, 자라나는 우리 모든 2세들이 글로벌인재로 성장을 해야지 어떻게 글로벌인재를 몇 명만 우리가 키우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목적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국제중학교는 우리가 우려했다시피 특권학교, 귀족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한 현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결국은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현행은 법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5년을 보고 다시 재평가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5년 기다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거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 어른들이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언제 아이들이 ‘나 글로벌인재로 크기 위해서 국제중학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또 ‘어른들이 뒤에서 비리를 총동원해 갖고 자기 국제중학교 넣어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중학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폐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5년 기다리기는 어렵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보면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 운영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규칙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지정 학교 중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 ‘기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입법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걸 기다릴 수는 없고요.

문용린 교육감님, 경상남도처럼 이런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문용린** 하여튼 영훈중학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문용린** 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소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문제가 된 학교는 일단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중요한 학교 전체적인 체제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이 모든 게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국제중학교도 그렇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사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특목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 갖고 있는데 법적 근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원하지 않았습시다. 어른들이 이런 무슨 추태를 벌이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앞서서 우리 현영희 위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받는 상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귀족 학교고 자기 부모가 재벌이고 정말 특권층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겪는 이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빨리 규칙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학용**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쪽에는 일단 잠정적으로 15시 30분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새누리당 위원님 1번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강은희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복수담임제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복수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복수담임제를 시행해 보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난해에 복수담임제를 거의 의무화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했다가 그것을 실정에 맞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은 복수담임제를 맡은 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실정에 맞게 점차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자유학기제에서도 복수담임제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2명 이상이 함께 교실에서 가르치는 코티칭(co-teaching)의 경우 복수담임제의 전례를 따를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코티칭 검토 과정에서 복수담임제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복수담임제를 의무화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복수담임제를 자유롭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학급의 경우에는 역할분담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한창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국제중 사건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의무모집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우리가 사회적 인식으로 봤을 때 아닌 부분에 대한 문제였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입학할 해도 기존 학교의 어떤 시스템이냐 그리고 학우들 간의 관계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학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국제중학교나 이런 학교들

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의 갭 차이도 상당히 정서적인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제중이나 이런 데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만 놔뒀을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사회계층의, 어떤 특별한 계층에 있는 아이들만 그 학교로 모이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그런 계층의 아이들도 같이 섞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도록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한 분위 이상의 대상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하여튼 일단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학교 안에서의 정서적 차이도 상당히 심한 부분인데 담임이라든지 학교 교사들의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출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휴직 사항들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미 있는 이 기간제교사들의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실제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종합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가 기간에 따라서 교육청 단위 혹은 학교 단위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대책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교원수급대책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정원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런 기간제교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검

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신분 차이가 난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교육적 효과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만약에 우리가 교원수급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조금 선제적으로 뽑아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대책이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대책 발표 전에 다시 한번 전체 교원의 비율과 향후 학생들의 수요, 숫자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장관님, 중부대학교 공공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감사보고 받으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받았습니다.

○도종환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중부대학교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숙사 건립 지원 부분을 살펴봤더니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화로 선정되면 응모할 수 없는데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또 추가 배정할 때 추가 배정의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데 또 추가 배정을 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또 심사에서 배점기준이 3점으로 돼 있는 걸 5점으로 주는 걸 두 개를 해서 실제 50점이 안 되는데 50점이 넘는 것으로 해서 지원했었던 말이지요. 그 지원, 배정이 되었던 227억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배정 예산을 취소토록 했고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를 교육부에서 요구한 대로 감사를 해 주시고 또 면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그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구요.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영훈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 2013년 수업료가 720만 원 맞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실제로 이것 말고도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또 급식비라든가 또 통학버스비라든가 교과서대금이라든가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참고인 정동식** 1년에 저희 예산서상으로 보면 등록금까지 다 합해 가지고 1인당 교육비가 800여만 원에서 조금 넘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정동식** 예.

○**도종환 위원** 어떤 자료에는 대원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학년에 따라서 1000, 1200까지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지요?

○**참고인 정동식**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보니까 대원하고 영훈 두 학교에 한 3000여명 정도씩 몰린다고 하던데 영훈은 얼마나 지원했었습니까, 학생들이?

○**참고인 정동식** 2013학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여 명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160명이지요?

○**참고인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정동식** 특별하게는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학교를 들어가면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도 있지요?

○**참고인 정동식**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난해 보니까 특목고에 한 59.2%, 자사고에 17.7% 들어갔다는 통계가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되지요?

○**참고인 정동식** 예.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사립 특수목적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니까 학부모들이 이렇게 몰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 이런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서 운영을 하셔서 가지고 지금 감사에 나온 대로 학생들 입시부정도 있고 교사 채용할 때도 이렇게 부당한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서, 이사장 최종 면접 관련한 자료가 없고 또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고 교사 임면보고서 허위보고서 하고 또는 이사장 최종 면접결과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했다는 이런 비위사실들이 맞습니까? 실제로 이랬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그 행정절차상의 어떤 미스 부분도 있는데요. 이사장이 면접을 했는데도 거기 서류상에 이사장이 면접했다라는 어떤 결과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도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질 높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보통교육의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교육비가, 엄청난 교육비가 들어가고 이래서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들도 많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렇게 많은 비리가 발생한 이런 학교를 계속 운영해야 될까?’ 이런 고민 같은 것 하고 계시지요?

지정취소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도 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지정취소 된다는 것은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일반 학교로 다시 전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중학교로?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원래 영훈중학교가 일반 중학교로 69년도에 개교했다가 이렇게 이런 중학교로 바뀌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다시 일반 중학교가 된다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교육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러면서 또 얼마든지 글로벌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무래도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감님!

○참고인 문용린 예.

○도종환 위원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위원장 신학용 도종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규칙 만든 것처럼 그런 교육규칙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참고인 문용린 그 규칙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것도 국제중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영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제중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에는 폐

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관님, 혹시 지정취소가 발생할 경우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문제 다루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위원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현재는 헌법 제31조에 교육권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법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그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경우는 이제 지정만료, 만약에 정말 지정취소가 돼서 지정만료일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재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존의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당초에 입학할 때 정했던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이 결정은 최종 언제까지 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장 내년도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도 어떤 학교의 입시를 할지 하반기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정만료일이 15년이라면 현재 2·3학년 학생들이 해당되지만 향후 14년도와 15년도에 새로 들어올 잠재적인 학생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것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프로세스상?

○교육부장관 서남수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제도를 신뢰하고 입학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최종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학사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여야

지, 그 판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그 부분은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서 정말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더 어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좀 살펴봐야 그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재 학생들도 불안해하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5학년, 6학년 학생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일선에서는 가정에 의한 거지만 지정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학교가 새롭게 지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시의적절하게 판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희정 위원**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지금 현재 밝혀진 입시부정 사건이 일어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상황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저는 작년 12월 20일 날 취임했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대다수의 상황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8·9·10·11 이때, 또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8·19·20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전임 교육감이 선거법으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새 교육감이 오기 전까지 공식인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거지요?

○**참고인 문용린** 교육감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입시가 치러졌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정말 지도자,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역사 왜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일본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까 장관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국사교육과 관련돼서 좀 머뭇거리시는 부분이 시험 교과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리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는 입시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사를 통해서 성적을 재단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사를 100점 맞았기 때문에 더 좋은 학교로 가고 국사를 90점 맞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덜 좋은 학교로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육은 얼마이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얼마다라는 제도에서, 점수의 상하를 나누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패스(Pass)·패일(Fail) 또는 패스·난패스(Non-Pass) 제도로서의 교육도 함께 고민을 하신다면 입시제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역사교육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낙 목소리가 크셔서 마이크가 꺼져도 다 들립니다.

○**김희정 위원** 일부러 크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박혜자 위원** 박혜자입니다.

화면부터 띄워 주세요. PPT 3번 좀 띄워 주세요.

장관님께서 화면에 떠 있는 공문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띄워져 있는 공문에는 ‘제3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행사와 관련해서 시·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5·18민주화운동 관련한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렇게 공문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감사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렇게 공문까지 해서 정확한 역사교육 기대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이 공문과 달리 5월 22일 날 광주에 주월동에 있는 봉주초등학교에서 교사 30여 명과 ‘현문즉답’ 행사를 가지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 자리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광주에서 5·18 역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하면서 서 장관의 의견 물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장관께서는 질의를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은 기억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답변도 기억합니다.

○**박혜자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혜자 위원** 명백하게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슈를 다룰 때에는 그런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반성해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 취지가 도대체 뭐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정치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이슈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5·18에 대해

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평소……

○**박혜자 위원** 왜 그러면 동문서답하셨습니까? 5·18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면 5·18 역사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냥 동문서답하고 오셨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 한 서른 분 정도하고 교육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데 더……

○**박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청문회 때에도 5·16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셨던 것 기억나지요? 청문회 때 답변 안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정치적인 주제입니까?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슈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우리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명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PPT 1번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1번 보시면 도대체 저게 우리 교과서, 제가 지학사의 교과서를 하나 카피를 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비상계엄 해제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 세력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저항하였다’,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기술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로 생각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이 정말 이렇게 기술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에서 189명이, 사실은 시민들이 무고하게 계엄군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기억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189명이 정부군에 의해서

정말 목숨이 버려졌는데, 소위 계엄군이 정부군이지요. 그런데 ‘학생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저항하였다’, 저항으로 끝난 사실입니까?

또 다른 교과서 보면 ‘폭력적인 진압을 했다’, 폭력적인 진압에 그친 겁니까? 그저 몽둥이 몇 대 맞고 끝났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에서는 집필자가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집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장관님은 교육의 책임을 지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교육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수장께서 역사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는 역사인식 제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5·16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5·18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5·16이나 5·18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객관적으로 잘……

○박혜자 위원 5·16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5·16에 대해서 입장 표명 하셨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과서에 있는……

○박혜자 위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 5·16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교과서 내용을 불러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도 답변 안 하셨잖아요. ‘이해해 달라’라는 말씀만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에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 총리께서는 답변을 하시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교육의 책임을 지고 계시면서 5·16에 대해서 회피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장관님께 우리 아이들 역사교육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다른 것을 갖고……

○박혜자 위원 다른 의도가 아니라 5·16에 대한 입장 하나, 5·18에 대한 입장 하나 명백하게 말을 하지 못하면서 눈치만 보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학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입니다.

장관님께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연이어서 하나만 간단히 좀 여쭙어 볼게요.

편수용어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교과서 편수자료에 12·12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12·12에 대해서는 편수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

○박홍근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9개 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 6개 교과서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명칭 표기 자체가 없고요. 나머지는 모두 ‘12·12 사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2·12를 ‘군사 반란’이라 규정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그것은 잘 알고 계시고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이 편수용어가 2015년도에 개정 예정입니다, 보통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격앙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편수용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편수용어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4년 주기를 떠나서 일단은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리고 아마 아까도 나가시면서 잠깐 만나신 것 같은데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흥근 위원** 올 평균 급여가 각종 수당 다 합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분들 한 14여만 명?

○**교육부장관 서남수**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박흥근 위원** 물론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요. 평균 한 134만 원입니다.

이 134만 원은 복지부가 정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4만 원보다 한참 못 미치는, 20만 원 못 미치는 거고요.

평균 근무기간이 5년 3개월입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사 1년, 보안관 1년 1개월,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요원 1년 2개월, 배식보조 1년 8개월, 대부분이 아주 다 짧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대책 세우신다고 그랬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흥근 위원**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비정규직의 범위가 너무 넓고 또 그 처우가 전부 다 달라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통일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흥근 위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년 동안 국회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계속 누누이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 말까지 책임 있게 답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지금 관련된 노조 분들 3만여 명이 21일 날 서울역 광장에 모이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지금 청사 앞과 국회 앞에서 농성과 시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국회 들어오실 때나 아니면 청사 들어가실 때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시고요. 그래서 정말 종합적인 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번에 반드시 내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법안이 지

금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국제중학교 관련해서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우선 교장선생님,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훈중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삼성 측으로부터 물품 또는 기부금을 받은 것 있나요, 약속받았거나 직접 받았던 것?

○**참고인 정동식** 영훈국제중학교에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박흥근 위원** 없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예.

○**박흥근 위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참고인 정동식**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다음 그 전에 2009년도 영훈국제중으로 개교 당시 교감이었던 분이 같은 재단의 영훈국제고등학교 이쪽에 교감으로 계셨는데 ‘내부고발자로 의심당하면서 보복성 직위해제 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정동식** 언론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한테 당시 이사장이 서너 명 이름 적힌 학생 명단을 주면서 ‘이 학생들 합격시켜라’ 지시했는데 이게 성적 조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이후로 학교행정 일체 관여시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와 김형태 교육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의 선후배 사이, 친분 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로 낙인을 찍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회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교장직무대리인데 교장 명칭을 사용했다. 결재를 지연시켰다. 회의석상에서 너무 자기주장이 많다. 수시로 자리를 비운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분을 잘랐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참고인 정동식** 영훈고등학교에 대한 사항은 제가……

○**박흥근 위원**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부고발자 색출이나 낙인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한편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런 게 진정성이 없다

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께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어제 ‘추첨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여당하고 교육부가 ‘인가 취소 검토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거부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계속 국제중학교 체제는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참고인 문용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학년 학부모들은 2015학년도 국제중학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015년도에는 ‘국제중학교 입시가 대폭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차원의 기본계획이라고……

○박홍근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할 텐데요.

혹시 이런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령 교육감께서 선거 당시에 고액기부금 500만 원씩 받은 데가, 대원학원의 이원희 이사장한테도 기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원의 이사장들한테도 기부를 받으셨는데 이런 게 혹시 ‘특수관계를 형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장관님, 이 국제중학교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립 취지인 국제 전문인력 또는 해외로 나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사회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여쭙어 볼 때 실제로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 여기 보내기 위한, 조금 더 상급학교에 유리하게 진학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다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애초에 설립 목적과 다른 것을 4000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설립 취지에 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당초의 어떤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점을 개선하면서도 그런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장관님, 검인정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 이것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서 집필돼야 된다 이것은 대원칙이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한국현대사학회 권희영 회장이 대표 저자로 집필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었는데 여러 걱정이 있는 것은 듣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분 권 교수께서 5월 31일에 있었던 학술회의에서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이 공유하는 인식이 현재 중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의 기본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태년 위원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면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

○김태년 위원 현재 교과서가 이렇게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이렇게 공유하는 뭐 어찌고저찌고 이런 인식에 동의하시냐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여기는 뉴라이트 계열인데 2008년도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10월 유신을 합리화한 대안교과서를 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역사학회의 정서를 무시하고 정파적 활동에 주력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김태년 위원** 이분들 보니까 학술적 성과 이런 것보다는 색깔론으로 반대진영 공격하는 것으로 뉴스에 주로 나오던데……

장관님,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검정심의회가 역사의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바르게 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시간이 워낙 짧아서…… 공약이행 의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교육 관련 공약은 여야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비 경감, 무상교육 확대, 자유학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대학 지원 확대, 이게 다 여야 공통 공약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국정과제 추진현황 보고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의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예산대책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 예산대책이 많이 빠져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산대책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선후완급을 조절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김태년 위원** 예산대책이 아예 빠져 있던데요. 예산대책을 제대로 세운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을 다 수행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것 증액해야 되는데 이것 증액 없이 이 사업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여러 가지 예산편성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태년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교 무상교육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한 2~3조 원 필요한데 이것 하나만 갖고도 지금 최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 인상이 필

요하거든요. 기재부하고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리과정 3~4조 원 필요하고 지금 고갈돼 가지고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기재부하고는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재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없이 이런 공약사업들을 이행하겠다는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교육청의 세출조정하고 취학 아동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니까 이것만 갖고도 다 해결된다, 지금 이런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교부금 갖고 다 해결한다, 이런 거예요? 안정적이지를 않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히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교육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매번 질문드릴 때마다 ‘문제없다’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문제 있다’ ‘기재부랑 어디까지 협의가 됐느냐’ 이런 식의 반복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누리과정 작년 연말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금과 같은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벌써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교부금 증액 이게 있어야 이른바 공약사업들 이행이 가능할 텐데, 임기 초에 확실하게 의지를 가져야만 이게 해결될까 말까 하거든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이형빈 선생님 임용 취소하신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공개전형 안 했다고 지금 임용 취소하신 거지요? 사유가 그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관련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보면 3년 이상의 사람인 경우에 이미 종전에 검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공개전형 없이 특별채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문용린 교육감님!

○**참고인 문용린** 예.

○**김태년 위원** 장관 하실 때, 2000년 1월 2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 이것 해 가지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해직교사들 특별채용 해라, 이렇게 공문 내린 적 있으세요. 기억나시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기억나시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김태년 위원** 그때 대상이 83명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44명이 의원면직자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면직자라고 하더라도 특별채용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참고인 문용린**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때 교육감님 장관 하실 때 취한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참고인 문용린** 그렇습니다. 3년만 지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해직 사유가 안 됩니다.

○**김태년 위원** 이 이형빈 선생 임용 취소한 근거,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희정 위원** 예, 김희정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태년 위원님 질문과정에, 장관님 답변 중에 조금 사실관계와 다르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장관님께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님께서 ‘한국현대사학회가 뉴라이트 계열이며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적이 있지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장관님께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의 교과서들이 이렇게 이렇게 특정한 시각에 의해서 집필이 됐다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희정 위원** 명확하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현대사학회가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없는 것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소위 속칭 뉴라이트 대안교과서가 우리 검정위원회를 통과한 정식 교과서입니까, 아니면 일반 출판물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반 출판물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검정을 교육부가 얼렁뚱땅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이상한 방향으로 훼손하고 있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일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장관님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상당히, 김태년 위원님의 질문을 상세히 들으시지 않고 그냥 막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셔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학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년 위원** 뭘 잘못 이해해요? 저는 질문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답변 제대로 하신 거고.
-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안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검정한 교과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 김태년 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질문한 적 없어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 김희정 위원** 집필 참여 부분에 대해서 답을 잘못하셨습니다. 현대사학회가 대안교과서 집필 참여하지……
- 김태년 위원** 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학사의 교과서 저자들하고 대안교과서 저자들하고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학용**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영훈국제중학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우려와 걱정을 표하셨는데, 이 표는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는데 제일 아래 3명의 점수표를 좀 봐 주십시오. 만점 받은 학생들이지요. 자기개발계획서와 자기소개서 45점 만점 받은 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일 거라는 추정이 되고 있는 경우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좀 보여 주십시오.

교육감님, 알로이시오초등학교라고 아시지요?

- 참고인 문용린** 예, 압니다.
- 유기홍 위원** 보육원인 소년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알로이시오초등학교에서도 이번 영훈국제중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그 세 학생들의 점수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주목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세 학생은 45점 만점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학업성적과 출석 점수에서는 만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 셋은 교과성적과 그리고 봉사 및 출석점수에서는 55점으로 만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세 학생 모두 아까

세 학생이 만점을 받았던 항목에서 7점, 23점 해서 3명 똑같이 30점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그 세 학생에 비해서 15점이나 덜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학생들은 불합격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참담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시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유기홍 위원** 장관님, 이런 국제중학교 계속 뒤야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홍 위원**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그릇이 돼야지,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들도 나와 계신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합격한 저 세 학생, 앞으로 저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상처가 저 아이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될지 잘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쪽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오늘 현안보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홍 위원** 정말 오늘 현안질의 주제로 선정할 때는, 그리고 6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까지 100% 무기계약직 전환하자는 얘기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육부에서 자료제출 받아서 무기계약직이 절대로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670명의 무기계약직이 계약해지 됐습니다. 2년 상시·지속 업무로 무기계약직 안 만들려고 2년 앞두고 무차별 해고되는 일들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고 무기계약직을 우리는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못하

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걸 한번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홍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저희는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삭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계약직 노조 간부들이. 그리고 6월 22일 3만 명에 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파업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호봉제가 어렵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얘기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호봉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1호봉하고 16호봉 사이에 5만 원 간격을 뒀서 실질적으로, 지금 평균 134만 원이라고 아까 했는데 4인 가족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데 여기서 16호봉 받는 분들의 월급, 물론 이게 작년 것이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봐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호봉제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나다군으로 임금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교육부에서도 6월 말까지 체계적인 이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하여튼 제가 직접 회의도 몇 번씩 주재하면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한테 아까 간사협의를 통해서 원본은 아니지만 사생활,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도록, 비록 요약본일지라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만약에 그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유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배재정 위원님 오셨네요. 질의해 주세요.

○배재정 위원 민주당 배재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상임위장에서는 처음 질의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전질의 중에서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역사와 관련된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지가 좀 여쭙 보고 싶은데,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께 저희 의원실에서 여쭙 봤더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장관의 평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역사적 사실이며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기술한 교과서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5월 22일에는 광주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대립된 이슈를 다룰 때는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하셔야 합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 봅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고의적으로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평소에 우리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가려면 교육 문제를 다룰 때는 현실정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고 장관께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말씀하시거나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꼭 어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배재정 위원 이어서 제가 장관 답변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되게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장관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정치적인 평가까지 끝난 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소신껏 답변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우려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교대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최근에는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대구교대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교 공간이 협소해서 특강조차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데 우리 국립대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6월 11일 날 ‘끝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을 기억하자’라는 주제로 5·18 관련 특강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대구교대가 특강을 불허하면서 그 사유로 내세운 게 ‘학교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좁고 그리고 강의실도 제대로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특강 불허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런 역사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우려가 들고요.

이렇게 국립대학인 대구교대가 눈치를 보면서 특강까지 불허할 지경인지, 더더욱 그게 5·18에 대한 강연인데, 이렇게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가 없기를 장관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광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3명의 교사를 특채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런데 3월 2일 날 이주호 당시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교사가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월 22일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소송 중에 서울시 교육감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셨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4월 22일 판결이 나자 3일 만에 임용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또 보내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판결취지로 보면 임용절차에서 하자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하자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절차가……

○**배재정 위원** 그 부분 제가 지금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99년부터 약 2년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하셨고 또 2005년부터 2년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내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때도 각각 여덟 분, 여섯 분의 전직 교사를 비공개 특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교육감이 특채한 방식과 똑같은 비공개 특채였습니다.

제가 법령을 다 살펴봤는데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특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특채요건이 관계 법령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장관께서도 특채를 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보복성 임용취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임용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 법적인 측면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할까요?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6월 7일, 그러니까 상임위가 열리기 며칠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세 분 중 두 분에 대해서는 또 임용을 유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장관에게 직권임용취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12일 임용취소를 통지했습니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가능성만으로도 임용취소 할 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시지요?

장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단순한 가능성 의미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임용취소를 하기로 한 그 교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의원면직을 통해 가지고 사립학교에서 그만두신 분인데 이분이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특채가 되는 것이 용인이 된다 그

러면 그 뒤에 사립학교……

○**배재정 위원** 장관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께서 경기도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계실 때 의원면직되신 분에 대해서 특채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됐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것, 말씀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 계시다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가셨다가 교육부에 특채되신 분 계시고요. 또 교육부에 계시다가 수석전문위원 계시다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이 되신 분, 특채되신 분 두 분이어나 더 계십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계시다가 특정 정당에 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교육부에 특채되는 일과 이번 일이 어떻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특채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법령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배 위원님.

○**배재정 위원** 특채와 관련해서 특정 사안에서 안 된다는 법령이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나중에 이어져요……

○**배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채라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인지—저는 이런 상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소신도 철학도 없이 들쭉날쭉 행정 펼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임용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철회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장관께 한마디, 교원 증원 계획이 분명히 다 있었지요, 교원 증원 계획?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맨날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산 뒷받침되고 해야 될 텐데 5개년계획 2017년까지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25명, 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된 게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아무 내용이 없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전국 시·도의 수용 계획 담당자들까지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왜 우려하느냐 하면 공약에 대한 재정계획을 다 세우던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재정계획이 없는 이 증원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계획에 포함될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보충질의 하실 분 많으시지요? 될 수 있으면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만 좀…… 두 분 하시고 두 분 하시고 비교섭단체 두 분 하고, 이렇게 여섯 분만 하십시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두 분, 두 분 하시기로 했으니까 3분씩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3분입니다.

○**유은혜 위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쫓기니까…… 교육감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봐 주십시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두 학교가 모두 교과용 도서 사용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받고 있다고, 저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체계 보내온 답변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유은혜 위원** ‘TV조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원어민교사가 미국 교과서로 미국식으로 가르친다. 수업이 완전히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유학을 간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서로 영훈국제중학교에 들어가려는 이유입니다’

영훈국제중학교의 홈페이지입니다. ‘선진 명문학교의 원서를 주교재로 사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교재입니까, 주교재입니까?
 아까 제 질의에 초·중등교육법 61조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용 도서 사용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시고도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닌가요?
○참고인 문용린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보고된 사항으로는……
○유은혜 위원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보고를 학교에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원서를 주교재로 사용한다고 학교에서도 홍보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사실조차 철저히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참고인 문용린 저 홈페이지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보고한 대로 다 그냥 믿고 넘어갑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초·중등교육법 61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참고인 문용린 원래는 저희들한테 자율학교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유은혜 위원 그러면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하라고 관리 감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참고인 문용린 당연히 아마 자율학교 신청을 했을……
○유은혜 위원 왜 안 하고 이렇게 위반하는데 가만히 계셨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도 지적을 못 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유은혜 위원 저렇게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앞서 맨 첫 화면에서 보여 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부정과 관련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입시부정만이 아니라 이렇게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교과서, 교재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시부정까지 생기는 게 아닌가,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관리 감독을 부실히 했던 건 확실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인 문용린 이번에 감사를 했고요, 또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아까 검찰에서 압수수색당하고, 당하기 전에는 그러면 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냐고 제가 여쭙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시의원들의 자료요청도 너무 많고 자료 정리할 시간이 없고 인력이 많이 들어서라고 말씀하셨지요?
○참고인 정동식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유은혜 위원 국회법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들을 인력이 부족하고 자료 양이 많아서 제출을 못했다, 이게 답변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정동식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
○유은혜 위원 저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검찰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제출을 하셨어야지 부정입학 관련한, 기부금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겁니까? 아까 요청하신 것 바로 제출하실 겁니까?
○참고인 정동식 저희가 있는 자료를,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겠는데요.
○유은혜 위원 이것을 압수해서 못 한다는 말씀 하셨지만 남아 있는 그리고 현황 정도 파악한 자료들은 제출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정동식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압수된 자료는 제출을 못 한다고 말씀을……
○유은혜 위원 교장선생님, 가지고 계실 때도 제출 안 하셨잖아요, 압수되기 전에도. 왜 안 하셨습니까? 이러한 명백한 부정, 기부금입학, 그리고 입학하고 난 다음에 뒷돈 거래 이런 것 숨기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 자료 요구하니까 이름 다 지우고 들어온 게 있어요. 아까 정진후 위원이 오늘 기사화된 내용도 있지만……
○참고인 정동식 아니, 이름 지우고 보내 드렸던 것은요……

○유은혜 위원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참고인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이를 지우고 자료제출 시기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지요?

○위원장 신학용 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아, 김세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金世淵 委員 장관님,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 1항의5호를 보면 ‘신체적 재능’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영재도 영재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의 4호를 보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해서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으로 법에 이렇게 취지가 담겨 있는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는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돼서 초등학교 졸업자가 빠져 있습니다.

입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과서 문제를 계속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앞서 드린 질문에 이어서 좀 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사학사관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언급했던 식민사관입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상고시대 때부터 왜곡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된 배경이 바로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출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동시에 45년 해방, 또 48년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사 속에 기적을 만들어 온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또한 자학을 하게 만드는 사관이 현재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북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민사관과 종북사관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명확하게 역사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의 노력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이루어 낸 성취 이런 부분들이 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균형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교과서의 검정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에 따라서 또는 역사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 역사교육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 절차, 그분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世淵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교과서에 지금 담겨 있는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한에 마치 정통성이 있는 듯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취약한 듯이 이렇게 잘못 기술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정진후 위원 영훈중학교 교장선생님.

하나만 간단한 것,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좀 여쭙 보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삼성간부의 자녀 자퇴했나요?

○참고인 정동식 저희가 자퇴라고 표현하고 있지……

○정진후 위원 아니, 확실하게 빨리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지금 학교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정진후 위원 그렇습니까?

○참고인 정동식 예.

○정진후 위원 자퇴로 자꾸 이야기가 돼서요.

교육감님, 우리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자퇴라는 말이 가능한가요?

○참고인 문용린 글썄요, 뭐 불가능하겠지요?

○정진후 위원 예, 앞으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심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영훈중학교, 국제중학교와 관련해서 성적 조작 이미 확인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을 사전에 내고 나중에 입학한 사례, 저는 이걸 ‘기부금을 통한 입학장사’라고 명백하게 규정합니다.

이런 부정, 그다음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의 파행,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행정실장 구속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자칫 개인의 비리로 몰아가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훈중학교, 국민들 앞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 어제 나왔던 것은 추첨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만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을 학교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감님이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 계속해서 답변하실 때 ‘검찰 조사 결과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적 조작이라든지 뒷돈 거래라든지 무슨 행정실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 사실만 가지고도 이걸 지정취소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기관으로서? 그렇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그러나……

○정진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교육규칙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규칙 같은 제도를 빨리 정착을 시켜 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장관님, 그 일 이외에도 지금 국제중학교가 갖

고 있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중학교의 최고 20배까지 달하는 학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영훈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이런 것 보면 평균 7000만 원이예요. 다른 일반 중학교나 이런 데는 여기에는 근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 내야 되는 법정입분담금 10%에서 30%밖에 내지 않고 있어요. 경쟁률 최고 27 대 1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과열 경쟁교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자사고의 입학통로가 80%까지 되고 있습니다, 진학률이.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 국제중학교가 현재 우리의 의무교육하에서 어떤 파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정취소가 되고 그래서 일반학교로 전환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과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관석 위원 윤관석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오전 질의 때 ‘직무감사만 해서 입학성적 조작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나머지 누가 어떻게 어떤 조작인지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이게 답변으로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감사할 때 자료를 다 받았고 감사 결과가 나왔을 거고 감사를 또 그런 걸 밝혀 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저희들이 확인……

○윤관석 위원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전에 보니까.

○참고인 문용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그 조작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확인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확인했지요?

○참고인 문용린 예.

○윤관석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일부 학교발전

기금 납부자명단이나 전입 편입 입학 등은 사회적 배려 대상 입학자 부모의 명단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도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했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발전기금이 오간 것은 확인했지만요 그것이 은행계좌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하는 현금의 소재지 같은 걸 저희들이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지만 여러 가지 감사할 때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또는 제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또 신청할 때 다 세부적인 자기 부모의 이름이나 모든 걸 쓰기 때문에 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에 그게 안 나오니까?

대충 감사하신 것 아니에요?

○참고인 문용린 예, 아마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부르거나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공공감사에 서는요.

○윤관석 위원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의지가 지금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끼친 엄청난 파장에 비해서는 대단히 미약하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서. 대가성이 없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성적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밝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특권층하고 복잡하게 연루돼 있으니까 그냥 대충 검찰 수사로 넘겨 버리면서 피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문용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윤관석 위원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뭐 아시겠지만 감사 전체……

○윤관석 위원 자, 그러면 결과 나오면요, 자꾸 감사 결과 나왔는데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조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입장 밝힐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감사 결과 나왔을 때,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못 합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결론이 저야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판결……

○윤관석 위원 지금 단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고인 문용린 지금까지로서는 저희들이 아주 확실하게 정황이 포착된 사람은 파면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윤관석 위원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중

재지정 문제……

○참고인 문용린 재지정 문제야말로 검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오전에도 국제중 폐지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는데 그런 소신이십니까?

○참고인 문용린 예, 글썽 폐지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관석 위원 이 정도 종합비리세트가 나왔는데?

○참고인 문용린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윤관석 위원 검찰 수사 결과 나와도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관께서는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 오전 입장이,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일단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종합적인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나머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강은희 위원 올해 교육계에서 일어난 비리를 보면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 감사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교육전문직 전직시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교육감선거 후보 매수비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계 제반에 일어난 비리는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러한 비리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정말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오늘 계속되고 있는 영훈중의 입시비리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김희정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 좀 어린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때 가장 정서적으로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당사자인 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거나 부족한 형편에 있거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계속 교과서 문제가 오늘 상당히 많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전체의 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일명 언론훈이나 그리고 어떤 소문에 의해서 ‘카더라’라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부분은 직접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가 중립을 지켜서 완벽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직원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의 수급대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원 수급대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전체 학교회계직에 대한 수급대책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23개국 중에서 23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부터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연구학교 42개교가 있지요. 여기서 지금 현재 살펴보면 진로체험공간 지원책 마련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로진학 상담교사 4550명인데 연구학교 지정하

려는 시범학교에 상담교사가 7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95%, 100% 정도 되는데 전북에는 27.06%, 아주 지역 간에 편차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모형을 여덟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살펴보니 예술·체육·진로탐색·동아리활동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진로탐색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1만 몇천여 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전에는 주로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체로 오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장기간 학업의 공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학부모들께서 자기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에서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나름대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2학년 때는 굉장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고 혼란 시기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의 접근을 하기보다 차라리 3학년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시행 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시범실시 하는 것처럼 1학년 2학기하고 2학년 1학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에 시범실시에서는 어떤 학교가 자유롭게 다른 학기를 해 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3학년 2학기에 해 보겠다 하는 데는……

○**현영희 위원** 아까 1학년·2학년 때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사실 유치원 때부터 자기 직업을 앞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하지만 정말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직업을 선택하는 신중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2학년 때 하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은 자존

감이라든지 자신감 또 선택의 기준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3학년 때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에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한번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이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훨씬 진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현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학년 때는 굉장히 혼란기입니다.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과중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간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시범 단계에서 그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예, 도종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도종환 위원** 장관님, 오늘 국제중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신설 계획이 있지요? 또 신청한 지역도 많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무슨 대전이니 울산이니 여수니 인천이니 굉장히 많은 데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중을 비롯한 자사고 교육비, 등록금 이것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한 우리 갖고 있는 자료가 옛날에 안민석 위원 2008년 자료 정도가 있는데 최근은 어떤지 그 자료도 좀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사람들이 ‘황제교육코스’라고 하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지요? 국제중 때문에 사립초등학교·국제중·자사고, 또 이렇게 해서 명문대로 들어가는 황제교육코스 특권교육, 귀족교육을 누구나 다 원하거든요. 학부모들은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대로 두면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교육 불평등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국제중 문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장관님께 좀……

○**위원장 신학용** 뭐, 자료 요청?

○**유은혜 위원** 예.

제가 아까 영훈국제중 관련해 가지고 초·중등 교육법 29조 위반 수년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장관님께 질의를 못 했는데요. 계속 질의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자, 오늘 자료 요청 중에 지금 사립학교 돈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얼마인지 좀 확실히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그리고 신학용 위원 등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남수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태권도 관련 현안사항,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관련,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관련, 국민 방문기간 중 해외문화원의 역할과 위기관리 역량 점검 등 이상 4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권도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태권도 관련해서는 두 건의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기원 이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 최근에 이사장을 뽑으러 모인 자리에서 오물 투척 등으로 파행이 났습니다.

국기원 이사장 임기는 5월 25일로 종료되어서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아직까지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부에서는 재직 이사들한테 국기원 상징성을 고려해서 조속한 이사장 선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정부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 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참고로 올림픽 종목 선정 투표방식을 제시해서 지금 뽑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 중 매회 최소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적 과반수 확보자를 선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번 30일에 이사회 நட 동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체육단체 관련 선거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임 이사장이 뽑힌 다음에는 국기원의 개혁방안을 협의 이후에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태권도 경기 불공정 판정으로 인해서 체육관 관장이 자살을 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서울지역 고교선발 결승전에서 경기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체육관 관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심판 제명 결정을 하고 대국민사과를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심판 판정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심판등록시스템을 더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심판 확보를 위해서 심판제도 개선을 하고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판정 분석·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요, 판정 시비가 잦은 종목에 대해서는 스포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파 판정 및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작권 집중 관리의 순기능을 고려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독점 구조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으로 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고 신탁 범위 선택제 등을 권고했으나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저협에서는 징수액을 1100억 이상 받아서 나눠 주고 있고 또 수수료만 해도 174억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비능률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탁관리업체를 하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정식 허가 전에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 사업 준비 후에 정식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 공고를 했고 지금 접수까지 마감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신탁관리

업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6개월간 시험 가동을 한 후에 정식 허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 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가 모두 가능하고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지지를 받아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으로 돼 있습니다.

옆의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쪽의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운영입니다.

현재 면세점은 1962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 운영을 통해서 관광 진흥 재원을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공사 면세사업을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기재부에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24일에 국회 문방위에서는 공사 면세사업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었지요. 문체부, 기재부에 공사 면세점을 선진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재부 쪽에서 선진화 대상에서 정식으로 제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대기업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해서 국산, 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로서는 관광산업 진흥 재원 상실로 150억 이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국고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면세점 직원의 대규모 고용 불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관광공사 면세점 지속 운영을 통한 국산품 판매 촉진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옆의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방문기간 중 해외 문화원의 역할과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 24개소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 및 근거는 국제문화 교류 증진 및 국가 이미지의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외교부와 문체부

두 군데 다 갖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직제에 문화홍보를 위하여 공관에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문체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직제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운영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문화원은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문화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외교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는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방 행사 시 공보 및 기자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문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정상외교 및 국민방한 행사 홍보 지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취재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차량 지원과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처와 관련한 문제점은 저희가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외교 행사 준비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매뉴얼 중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이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급박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대응 역량을 갖추고 구체적인 대응요령 사전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순방 행사 홍보 지원 준비와 실행 매뉴얼을 보완해서 인력 선발, 운영, 사전 교육 및 안내, 유관기관 협력 등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문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김태년**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태년** 위원 오늘 두 부처 현안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일정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개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보면 네 가지 현안보고인데, 총 16페이지짜리인데 현안 관련한 자료는 달랑 6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도 다 봤던 현황

이고요. 이렇게 보고서 무성의하게 작성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나 마지막 현안보고 ‘국민 방문기간 중 해외 문화원의 역할과 위기관리 역량 점검’ 이것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미국 국민 방문 도중에 사상 초유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주미 한국문화원이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했던 담당 직원은 일이 터진 뒤에 곧바로 사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문화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오늘은, 현안보고라고 한다면 이런 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체부가 경위 파악을 해서 상임위가 열렸을 때, 더구나 오늘은 현안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고요. 그래야 개인이 잘못된 건지 조직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정조사 해 가지고 문화원 직원 전부를 증인 채택해 가지고 조사를 해도 모자랄 일인데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권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학용 예.

○유기홍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시기 어려운 과도한 특권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놓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을 대변하는 권능까지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안 질의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출석시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일인데, 사실은 대통령 방미 중에 윤창중 전 대변인의…… 정말 이것 역시 국기문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1차관계 전화를 드려서 몇

가지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인턴 여학생이 사직했다고 하는데 그 경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턴 여직원을 안내해서 대신해서 워싱턴 경찰에 신고했던 여직원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직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사직의 경위, 그리고 하나는 당시 문화원이 대변인들의 공보 업무를 지원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창중 대변인이 그날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저는 워싱턴 문화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화원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문화부에 그날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자료든 아니면 직접 와서 설명이든……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동일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사실 제목이 이게 뭐니까? ‘국민 방문기간 중 해외 문화원의 역할과 위기관리 역량 점검’ 사실은 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료하지요, 대통령 방미 중에 있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문화부장관께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향후에 현안질의를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할 것이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질의가 없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더더군다나 야당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문화부 관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장관님, 제목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 신학용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어떤 여야 간사님들 협의 과정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넣는 것은 피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거기에 관한 자료는 넣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넣었네요.

그래서 유기홍 위원님이 또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그 자료까지도 제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제출해 드리지 못 하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인턴 여직원

사직 경위하고 문화원의 임시 직원 사직 경위는, 인턴 여직원은 그때 일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사직이라기보다는 그 며칠 동안의 아주 단기 계약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도 그렇고 문화원에 근무하다가 그날 대신 신고를 하고 그만뒀다는 직원도 그렇고 전혀 접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히 문화원 여직원이었던 그 사람은 그날 아침에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서는 그다음에 전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세한 사직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사항들도, 지금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장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이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여기서는 모으기가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는데요. 현안보고라 해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나름대로 보냈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이 보고 때문에 저로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질의 과정에서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저도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준비된 것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현안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질의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나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장관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장관님까지 국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직원들 둘이 접촉이 안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언론사가 가서 그 인턴 여학생의 아

버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사가 가서. 왜 접촉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각조각 난 것을 다 합쳐야 되는데 어렵다? 그렇다면 문화원장 그리고 그쪽 책임자들 다 사표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그날 바로 전모를 파악했어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지요.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게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차관계 전화를 해서 그런 자료요청까지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셨다면 중간에 와서 '지금 이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지 못하지만 대략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구두로라도 중간에 성의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어렵게 현안질의 주제로 선택했는데 오늘 달랑 한 장짜리 자료 제출한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면자료로 하거나 그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와 자료를 요청했던 여러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1차관이 위원님께 한번 다녀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유기흥 위원** 설명 들은 것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그대로 해 주시고요.

○**김태년 위원** 답변 내용 중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그러면 지금 문체부는 이 사건 후에 워싱턴 문화원으로부터 이 사건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사건 경위는 당연히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현안보고를 하면 최소한 문화부가 받은 보고내용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상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각 맞추기라는 게 그 친구들이 본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미국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그러한 대략의 말씀이라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턴 직원하고 여직원 문제도 아마 기자들은 접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상대방에서 이쪽에서 아마 연락을 하면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워싱턴 문화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건의 실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봤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언론에서 지금 나온 것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워싱턴 문화원에서 얘기를 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태년 위원님, 질의시간에 또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다른 사안인데요, 확인만 하겠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관석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예.

○**윤관석 위원** 아까 오전에 상임위 열릴 때 문화재청장 출석 문제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어

떤 이유로든지 빠지긴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참석하는 쪽으로 아까 얘기가 돼서 오후에 참석을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참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학용** 이번 임시회에는 그대로, 약속한 대로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문방위 할 때도 문화재청장이 주요 현안질의 때 직접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청 자격으로 항상 와서 배석하고 또 필요시에는 질의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빠진 것은 유감이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이 한 1100억 이상으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또 국회나 여러 단체에서도 신규 신탁단체를 추가 허가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복수 신탁단체로 전환하게 되면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고 저작권을 보유한 회원 유치나 경영 효율화, 관리 수수료 인하, 이런 단축이 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예측이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 단체가 창작자의 권리에 의해서 서비스 경쟁을 하다 보면 등록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수익도 극대화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용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아까 자료 내신 것하고 다른 이유는 없으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경쟁체제가 되면 저작권 수수료를 당연히 외국의 예로 봐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작권을 많이 걷어서 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저작권법에 보면 문화부의 허가

를 받아야 하고 법에 명시된 요건을 보면 저작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신청한 4명의 경우를 보면 법적 요건이 충족된 단체인가? 지상파가 끼어 있고 대형 연예기획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허가를 우리가 줘야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회사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문심사위원이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를 하겠지만 현재 신청한 4명 중 방송사나 대기업에 있는 이런 자가 끼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심사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갑을관계 이런 것도, 사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갑을관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음원이나 이런 것도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다 유통을 하고 또 제작까지 하고 있고, 제작은 제작자가 수익을 챙기는, 굉장히 적게 되고 이런 것도 개선을 하는데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결정이 되면 또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융성은 시대정신으로 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 문화예술장르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한 20명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한다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0~50명이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늘려서 그냥 월 1회 이런 포럼 형식보다는 아주 문화융성이고 우리의 아마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을 만든다면 거기에 포함된 위원들이 연구자료를 매달 제출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존 단체의 성격보다는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20명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게 되겠지만 인원도 좀 늘리고 문화장르도 다양해야 되고 또 한류를 대표하는 큰 기획사나 드라마제작사, 영화사, K-pop 이런 쪽은 빠져 있는 것 같

다는 얘기를 제가 접수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면에 나서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야, 소란해야 뭔가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위원회가 맞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융성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비서실하고 같이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그게 9월 달인가요? 9월 달이면 거의 다 끝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일산에 지금……예.

○박창식 위원 그게 지금 ‘빛마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운영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래부와 우리 문화부가 같이 공동으로, 과거에 방통위와 문화부가 같이 자금을 대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은 문화부가, 내부장비는 지금 미래부가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 안에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렇지요? 그 시스템을 공청회를 열어서…… 이게 또 다른 건물 자체가 그냥 문화융성에 맞는 그런 사람들, 1인 창조하는 사람들 내지는 뭔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거나……

거기에 인프라는, 장비가 한 50% 정도밖에 들어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건설은 거의 한 95%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거기 장비가 진짜 필요한 장비인지, 과거에 한 3~4년 전에 보면 사실 필요 없는 3D 장비를 수십대씩 구입을 해서 쓰지도 않고 창고에 박혀 있고 결국은 그것을 쓰지 못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연습용으로 갖고 가질 않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도 제가 목격을 여러 번 했는데 이 건물 방송 인프라에, 빛마루라는 관리 운영 안에 어떤 장비가 들어와 있는지, 외부의 전문가들도 많고 또 이게 어찌 보면 방송사의 전문가가 다 들어와서 그 건물을 장악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독립제작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주 손재주가 있고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 이런 친구들이 사실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게 이 건물을 지은 목적과 그 다음에 미래부와 문화부가 사실은 그런 인력과 사람들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박창식 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 가면, 제가 건물 땅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아마 장관님도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미래부에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시다만 거기 일하는 분들, 모든 이런 부분들이 문화융성과 결맞은 그런 분들이 거기에다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무실만 임대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냥 오피스텔 지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거기에 좋은 스튜디오도 만들고 장비도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빗마루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독립제작사하고 중소 PP에 우선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대기업 방송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장비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해서 결과를 반드시 위원님께 알려드리고 다시 또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연락도 하고 그래서 공청회 할 때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다.

장관님,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신청을 받으셨지요, 개인 명의로 조건을 붙여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이지요.

○정진후 위원 단체 명의로도 가능하도록 신청을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어차피 이게 일종의 SPC 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요. 특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진후 위원 그 단체가 신청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구성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정진후 위원 개인이 신청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단체 운영과 이후에 지정이 된다면 3년간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첨부하도록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는 내용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심의 중이고 그래서 제출이 안 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상파 3사가 10억 원씩 30억 원을 출연해서 사단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YG나 SM이나 JYP나 하는 대형기획사들이 컨소시엄을 나름대로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사실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이미 신청한 업체를 통해서 다 나간 정보이기 때문에……

○정진후 위원 그게 걱정스러운 것은 허가를 받은 단체가 아까 조건에 달려 있듯이 초기의 운영 능력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사실상

저작권자들의 어떤 권익보다는 단체 운영의 영리성 확보가 우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영리성 위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심사평가기준에다가 지금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나중에 그게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국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점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용료의 효율이나 금액, 그다음에 사용료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승인하는 창작자들의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도 저희가 단체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 부분에 저희가 그 항목을 넣어서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게 단순하게 신탁관리업 복수화, 신탁관리업에 대한 복수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분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체계 정비 이 부분도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게 주목적입니다.

○정진후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면세점 관련해 갖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현안질의를 위해서 자료들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도 하시고 이러셨다고 그래요, 공문도 보내고. 공문은 어디어디 보내셨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관세청 여기에 보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기재부에도 보내고요.

○정진후 위원 기재부에도 보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정진후 위원 기재부에 공문 보내셨습니까? 아직 어떤 답변을 못 들으셨다고 아까 그랬지요? 기재부에는 안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보냈습니다. 기재부에 보냈는데 아직 기재부에서는 저희한테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진후 위원 답변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공공부문 선진화방안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 일정하게 조정되거나 논의되는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해당 부처에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특히 관광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라도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속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사실상 6월 지나고 나면 이거 끝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어쩔 수 없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진후 위원 그렇습니까? 연장이 안 되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6월 달에 끝나는데 바로 입찰을 한 번 더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진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태권도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심판등록제를 실시하시겠다, 불공정판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시겠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러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 양성과 교육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각 경기단체별로요.

두 번째는 전국 규모 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심판운영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편파판정이나 판정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경기 후에 심판운영과 관련된 평가제도를 도입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조치나 보복 때문에 사실상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제도를 만들어도 유명무실화됐거든요? 이 세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동의합니다. 지금 특히 평가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판들을 가령 1급·2급·3급 해 갖고 여러 가지 어떤 기량을 보고 평가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우를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스포츠 옴부즈맨 제도라고 그래 갖고 아무튼 그 심판 관정행위를 계속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 경기만 녹화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기를 다 녹화를 해 갖고 그 녹화를 보고 심판을 다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공정성이 생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

○徐相箕 委員 대구 북구를 서상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린 노인진료비 문제와 또 생활체육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2011년 통계를 보면 노인진료비가 연 15조입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노인진료비만 70조가 됩니다.

장관님, 이런 숫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상상하기 힘든 숫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심각합니다.

○徐相箕 委員 그렇지요? 이것은 노인인구 증가하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성인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고혈압, 당뇨 이것만 보

더라도 2008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580만이기 때문에 아마 2020년 되면 엄청난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점을 보면 2011년에 15조인데 2020년에 70조가 됩니다, 노인의료비가.

그런데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경제규모로 봐서 이게 부담 가능한 액수라고 생각이 가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게 이렇게 가면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 우리 정부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 한 20~30%를 쓰는 거기 때문이에요.

○徐相箕 委員 그러니까 지금 GDP의 9%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목표가 GDP의 얼마쯤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GDP보다는 정부 전체 예산의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것밖에 안 되지요? GDP로 보면 더 적어질 텐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판단하건대 노인들의 숫자가 증가되는 거는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될 텐데 여기에 우리가 마땅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결국은 노인들을 위한 체육활동, 생활체육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그 외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를 들어 봤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생활체육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건이 많이 열악하고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의 출발도 늦어졌습시다마는 지금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 7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3페이지 정책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어르신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청년 체육지도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청년실업도 해소를 하고 어르신들 체육활동도 활성화시켜서 하다못해 70조의 10%라도 줄일 수 있다면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서 정말 국민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

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면한 문제로, 내년 예산 요청액이 어르신 부분에 275억입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특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보다 한 500명 정도 더 증원하는 예산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간부 되시는 분들도 꼭 좀—기획관리실장님은 물론이시고—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우리 장기적으로 2010년, 2020년…… 사실 돌아서면 2020년입니다.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아주 획기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의료비 70조라는 거는 과장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달리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체육을 통한 그런 방법, 금연활동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역시 체육활동을 통한, 또 체육활동은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다 관계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徐相箕 委員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지적과 대안 제시에 저희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 지금 시설들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지역에 가도 대형운동장이나 체육관이라는 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들이 텅텅 비어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특히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선 프로그램들을 많이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자발적인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진흥시키는 그런 방향

으로, 심지어는 저희 실국 회의에서는 운동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가령 30명 이상 모아 오는 체육지도자들은 우리가 무조건 비용을 지급하자, 이게 자발성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라는 이군현 예결위원장님께 제가 이걸 특별히 독대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덕 위원 전주 완산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선언하고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융성 기조 실현을 위해서 세 가지 추진전략과 열 가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할 목적으로 지난 5월 말에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그 문화융성위원회 설치하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제작년에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융성위원회는 굉장히 빨리 당겨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가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빨리 설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의욕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입법에

고하고 부처 협의를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법제처장하고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좀 단축했습니다. 최소 10일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법제업무 운영규정이라고 그래 갖고 있기 때문예요, 저희가 그 규정을 준용을 해서 단축을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무분별하게 행정입법이 진행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원래 20일이었던 걸 40일로 늘렸습니다, 2011년도 말예요. 그렇지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인데 우리 장관님 답변이 예를 들면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시도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어떤 시급성,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니예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써 먹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이유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이유가. 어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40일로 되어 있는 기간을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튼 문화융성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은 그런 조급성 때문에 단축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에 의문성이 있고 기존 정책자문위원회 업무분야별 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안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정부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있고, 그렇지요? 문화융성위원회가 지금 현재 6월 중순인데 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빨리 서둘러서 했는데 지금도 구성하고 있다는 건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한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관님께서.

청와대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서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둘러서 구성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지요? 지금 문화부장관이 문화융성위원회 간사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총리가 되는 겁니까? 문화부장관이……

장관이 간사로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 직급에 의미를 저희는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간사로 있는 거는 그 자문위원회와 저희 행정부의 일을, 연결고리로 제가 서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면 청년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이 실무단을 별도로 꾸리고 실무단 단장이 간사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이 하든지……

장관은 내각의 구성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분야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년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문화융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정책 수립은……

○김윤덕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문화융성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옥상옥이예요. 장관을 간사로 두고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이 장관 위에 있는 거지요. 대통령에 자문하는 자문위,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융성위원장 의사대로 가는 거지. 문화부의 문화에 관한 업무의 총체적인 운영방향을 자문하는 기관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부의 운영방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께 자문하는 그런 기구지요, 문화융성위원회가.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문기관의 간사를 장관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장관은 일을 독립적으로 해야지. 옥상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문기관은 자문기관대로 있는 거고, 청와대 비서관이 하든 아니면 실무진을 꾸려서 실무단장이 하든 문화부장관이 독립적으로 협의를 해야 맞지요.

만약에 문화융성위원장하고 장관하고 생각이 다르면 누구 뜻대로 합니까? 대통령이 심판 봅니까?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이 지금 그걸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위원장이거나 대통령이 위원장이거나 장관이 간사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민간인이 위원장인 곳에 장관이 간사예요, 문화부의 총책임자가. 이거 수정하십시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반드시 재상의해 가지고요, 지금 구성 과정에 있으니까 논의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서둘러서…… 행정입법 예고기간 40일씩 두고자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두르니까 안 되는 거고 미스가 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상의해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서 문화융성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순서네요.

이에리사 위원님!

○이에리사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이에리사 위원 혹시 태릉의 체육박물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이에리사 위원 올림픽회관 1층에 88올림픽 전시관은 혹시 보셨겠지요, 거기는 행사 때 보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봤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저는 이번에 우연하게도 문화체육부가 이 위원회로 오면서 박물관 현황을 보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박물관

16개, 기타 부서가 하는 박물관이 15개 해서 31개 국립박물관이 현재 있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체육인으로서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것만큼은 꼭 좀 체육인들이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한국 스포츠가 세계 속의 위상, 국민에 안겨 준 감동과 그 여러 가지 실적으로 봤을 때 국립체육박물관이 이제는 세워질 때가, 늦었지만 시급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장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보여주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동안에 저도 체육인의 선배로서 참 너무 후배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기회에 사례를 보니까 해외에는 이미 국립체육박물관이, 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구박물관이 있으면서 그 야구박물관에 자국의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들, 이름을 제가 대기는 적절치 않아서…… 개인선수까지도 그 박물관에 기념품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장관님, 이번 기회에 꼭 국립체육박물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바쁘시겠지만 문체부 내에서도 좀 빠른 속도를 내서 해 주시면, 금년 안에 시작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체육인들이 더 이상의 보람과 자부심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참고로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지금 추진하는 거에 그런……

○이에리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만약에 세워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느 건물 안에 그냥 시늬만 갖춰놓는 것보다는 박물관, 국립박물관, 체육박물관 자체를 건물 하나 해서 정말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콤플렉스 안의 박물관은 안 하더라

도 정말 건물 자체가 국립체육박물관으로서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태권도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랬고, 물론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 위원회 안에 교육과 제도와 평가시스템이 다 같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잘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요.

지금 국기원 문제가 계속 이사장님 선거 문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단체, 체육 관련 단체 회장 선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국기원 이사장님이 선정되고 나서 개선방향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해서 인준하겠다는 것은 조금 경기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정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선출되기 전에 후보 등록 시에 ‘당신이 이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받는 게 어떤가 저는…… 그분이 이사장에 당선이 됐는데 업무 협의, 당신의 개혁·개선의 방향, 앞으로 방향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인준 안 해 준다면 그때 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후보 등록 때 그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개혁해 나갈 건가라는 것을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체육국의 위상이 상당히 벽차다…… 체육국 내에 4과, 체육정책과 국제체육과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이렇게 4개가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벽차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인들은 체육국이 독립돼야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면 문체부 안에서의 체육국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서 그 많은 체육 업무,

국내·국외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인력을 보강하든지 위상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4과 1국 체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장관님, 이 부분도 체육국의 위상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아까 정진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저작권 문제, 저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잘했다 못했다 뭐 항상 그렇지요. 잘 판단해서 부처가 하시리라고 믿지만 어떤 거든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윤관석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윤창중 성추행 사건의 무마 계획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 그 사건 개요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문화원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당시 미국 경찰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것에 보면 5월 8일 아침 6시에 피해 인턴이 주미 한국문화원 여성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여성 공무원이 문화원장과 주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고 또 7시에 인턴과 문화원 여성 공무원이 911에 신고를 합니다. 문화원장이 인턴 방에 찾아가 10분간 면담을 하고 또 문화원장이 청와대 측에 성추행 사실을 통보하고 7시 반에 또 당사자 윤창중 전 대변인과 그 피해 여성을 찾아갔다가 문화원 직원이 대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2시에 윤창중 전 대변인이 델러스 공항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도 교통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차례 의혹 보

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부 신고를 받았음에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든가 또는 무마에 관여해서 도움을 줬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한 게 지금 조각조각 맞추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략의 어떤……

○윤관석 위원 사건의 전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뭐고 지금 얘기했던 의혹들에 대한 사실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요 문화원에서 얘기한 것하고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관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적어서 말씀드릴게요.

귀국할 때 차량편을 제공하고 같이 안내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윤관석 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니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문화원장한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런 식으로 서로 이 사실에 대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문화원에서 들은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는 다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의혹제기에 대한 사실까지도 다 문화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어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공항으로 보내…… 윤창중 전 대변인 귀국할 때 편의 제공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윤관석 위원 보고서를 따로 받지 않나요, 원래 정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것은 보고서로 받을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길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윤관석 위원 아니다, 어디가 아니라는 거지요? 마지막 부분에 공항에 차량편 제공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제공을 안 했다는……

○윤관석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대동하지도 않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어디를요?

○윤관석 위원 공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대동했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전혀……

○윤관석 위원 문화원장은 이런 일이 생기면 본국 장관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매뉴얼이 문화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은 저희 문화부에서 하는데요, 가령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CP가 차려져가지고 현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또……

○윤관석 위원 사후에 한참 뒤에만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저는 한국시간으로 5월 9일이지요. 5월 9일 낮에 해외문화홍보원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시다.

○윤관석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문화원이라는 게 해외에 설치돼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또 교류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돼서 무마에 같이했다면 현지에서 우리의 문화를 잘 알리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윤관석 위원 심지어는 현행법에 미국 같은 데서 처리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지휘자로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잘못하면 나중에 신뢰가 떨어져서 해외에 우리의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상호 교류를 이끌어어나가는 역할이 전혀 안 될 거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는 입장 발표를 제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야 워싱턴 주재 한국문화원의 위상이,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입장 발표를 제가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든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구석구석 하나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이 6·15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일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당국자 간 회담의 격식을 둘러싸고 잘되는 듯하다가 파행이 돼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남북 화해협력의 국민적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화요일 날, 11일 대정부질문 때 정홍원 국무총리도 원칙적으로 북한의 인천아시아게임 참가를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당국자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 장관께서 직접 북한 참가나 공동응원단 구성 등에 대해서 회담 주제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당연히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또 6월 29일부터 실내·무도아시아게임 열리는 건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태권도, 앞서서도 얘기했었는데 판정시비로 결국은 그 선수 아버지가 죽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지역에도 다니면 태권도 관계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강은희입니다.

오늘 특별히 문화융성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위

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문화융성위원회가 과거 MB정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장관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국가브랜드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능까지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자문기구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의 수가 20명이면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는데 또 광범위한 부분을 다 포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명을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생각에는 20명 정도를 생각하는 것은 서로 소통 가능한 범위를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지면요, 서로……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들 사이에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난 12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화융성에 대해서 단순한 예술진흥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기반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강은희 위원 문체부만 노력해서는 문화융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모든 부처의 정책에 문화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밝히셨는데, 범정부적 추진력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의견이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국정기조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정책에도 문화의 가치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무회의든 여러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부처에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문화융성 자문회의가 잘되면 문화융성위원회가 또 창조경제하고도 상당히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 중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 부분 있지요. 지금 2차례 유찰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강은희 위원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판매하는 국산품이, 다른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다른 면세사업자가 입찰을 하게 되어서 낙찰을 받게 되면 한국관광공사는 운영을 포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향후 한국 면세점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짐작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다른 면세점에서는 술, 담배, 향수, 화장품 이런 것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관광공사 면세점은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 국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 그리고 국산품이 상당히 많고 또 한국 공항에서만 살 수 있는 면세 제품들도 많은 부분이라서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공항 면세점이나 기타 면세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입찰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당연히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잘 입찰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작권 부분에 따른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KOMCA지요, 과거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가 개선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복수체제로 운영하실 예정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강은희 위원 국가마다 굉장히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독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경쟁이 가능하나 실제로 독점하는 곳, 그리고 법적으로나 실제로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세 가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수체제가 되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법적으로도 복수체제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복수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은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예.

○강은희 위원 복수체제 도입으로 혹시나 사용료가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을까, 그리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이용 허락을 경쟁적으로 하다가 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제가 하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유기홍 예, 이용섭 위원님하고 순서를 바꾼 걸로 돼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정 위원 먼저 국립오페라합창단에 대해서 한마디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저희 당의 존경하는 김한길 대표님, 전병헌 원내대표님 그리고 저까지 3명의 의원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장관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물론 일도 많으시고 바쁘게 활동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국립오페라합창단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장관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잘 아시다시피 국립오페라합창단은 지난번에 해체되고 나서 3년간 사회적기업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 그러니까 나라 오페라단으로 해서 임의단체로 해서 운

영되고,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배재정 위원** 히스토리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너무 길고요.

그러면 그동안 활동하신 것하고 앞으로 계획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일단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ABC협회에서 발행부수를 검증해서 발표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그리고 그 수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 배정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발행부수 공사과정, 즉 검증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저희 당으로 들어왔고 언론에도 이 내용이 좀 보도됐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201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ABC협회는 방통위의 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심사 제출을 위해서 2009년도의 유가부수에 대해서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지국에서 그 부수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고가 되고 실사한 것처럼 조작되거나 표본지구의 성실률을 축소 또는 확대해서 보고한 사례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표는 신문사별로 공사 결과를 종합한 것을 집계한 겁니다.

먼저 동아일보고요.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발행부수에 대한 보고 부수가 여기 이렇게 공란으로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기록돼 있고요. 그런데 현장기록 결과에는 모두 다 지금 숫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동아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또 매일경제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상한 것은 사실

이네요.

○**배재정 위원** 이외에도 개별 지국들을 조사한 표를 살펴보면 성실률을 산정할 때 실제로 현장 실사한 수치보다 확대 또는 축소해서 기재한 흔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표본지국으로 선정된 지국 중에는 실제로는 지국장이나 책임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사고지국인 경우에도 보고 부수가 있는 것처럼 임의로 수치가 지금 기재돼 있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ABC협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ABC협회 직원분들은 저희 당의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자료를 배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요. 오히려 제보된 내용 중 일부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장관님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ABC협회와 관련해서? 장관님,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 일이 벌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종편 허가 문제와 관련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배재정 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ABC 제도는 광고주들한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광고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광고단가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당 신문의 공신력을 높이는, 그 공신력을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시다시피 또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승인심사에도 심사기준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공사 결과에 상당히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ABC협회가 지금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도 ABC협회가 2002년과 2003년 조선일보의 유가부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이 됐었고요. 이를 또 문체부가 조사하기도 했었고, 검찰 수사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ABC협회는 설립 당시에 문체부 기금이 50억 원이나 투입이 됐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4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는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문화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식하시고 대처하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로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것 정확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그 독점이라는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료부수 검증을 복수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ABC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世淵 委員 장관님,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이 앞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현재 문체부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경로는 저희 저작권국에서 지금, 해당 과가 지금 관리……

○金世淵 委員 행정지도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金世淵 委員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되어 왔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제가 보고받기로는 행정지도의 목표를 달성 못한 것으로 들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수 저작권단체 지정의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KOMCA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런데 이제 음악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창작활동을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음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존 협회의 문제점 때문에, 음저협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반드시 개선은 필요한데 독점이 해소된다고 해서, 즉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창작자들에 대한 권리 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가지고 오히려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사업자들, 예를 들어서 방송사들이라든가 또 거대 기획사들 또 통신사 이런 쪽에서 만약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직계열화돼 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자들과 이런 사업자들 간의 교섭력에 심각한 불균형이 곧바로 닥쳐올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KOMCA가 제도개선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KOMCA 쪽에다가 ‘제도개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복수단체를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KOMCA 쪽에서 ‘그렇다면 복수단체 지정해라’ 그렇게 얘기가 돼 갖고 이 작업의 발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시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기존의 KOMCA에서 충분히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 창작자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음저협은 동의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 권리관계의 침해를 받은 측하고 그 침해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따로 있는데 문제의 원인과 결과와 그 제공자와 이 해결 방식에 있어서 정확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통신사에서 직접적으로 음반 제작까지, 가수 육성까지 그 사업을 확장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金世淵 委員 그래서 이런 추세가 강화될 경우

에 이 거대 사업자들이 창작산업, 특히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건 우리 박근혜정부에서 이렇게 창작기반을 더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현재 6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연말까지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복수체제로 가겠다고 한 이 일정을 좀 더 신중하게, 다른 방안들도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좀 연기를 일정 시간 동안 하면서 대안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어떤 경우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KOMCA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기 조절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 역시 저희가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창작자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즉 거대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체제의 출발이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일정 연기를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균 위원 날도 데운데 수고하십니다.

혹시 순천에서 지금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가고 싶었지만 아직 못 갔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직 장관님 못 가보셨는데, 아마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한 200만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까지인데 그러면 500~600만이 되지 않나, 아마 뜻밖의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박람회에 국가가 상당한 정도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정세균 위원 혹시 외국에 다니시면서 일본 정원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자주 봤습니다.

○정세균 위원 중국 정원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중국 정원도 봤습니다.

○정세균 위원 한국 정원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한국 정원은 독일에 하나 만든 게 있고요. 나머지 본격적으로 만든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지도 가끔 외국에 가 보면 일본 정원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동양 정원하면 바로 일본 정원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한국 전통 정원도 역사도 있고 또 상당한 정도의 정원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외국에는 한국 정원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십년 전부터 외국에 정원을 조성하면서 자국의 문화로 잘 알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뒤질세라 가세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원 특유의 문화를 통해서 ‘일본은 아름답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다’라는 그런 인식을 서서히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보면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LA 아닙니까? 그런데 수년 전에 LA에서 한국 전통 정원 건립을 위한 민간활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에 일본 정원이 300여 개나 되고요, 중국 정원도 1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그런 것을 못 했을 수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또 교포사회도 역량이 커지고 있고 또 한류를 비롯해서 문화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너무 뒤쳐지고 있고 미국에 우리 한국 정원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

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지 교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모금도 하고 한국 정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해 오고 있는데 문화부나 외교부가 이런 데서 전혀 뒷받침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이게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적극적인 노력을 교민들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정부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영국이나 또 동양 3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 또 문화적인 입장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면 그것이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처음에 교민사회에서 이 논의가 될 때 총영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총영사가 교체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방해까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식적으로 무관심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현황을 좀 더 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교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한국 정원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하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뒤따를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그 투입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촉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실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한 심판의 불공정 심판으로 피해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장실 위원 피해 선수의 아버지가 태권도협회나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클린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클린신고상담센터 민원처리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센터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해당 경기단체로 그대로 이첩이 되고 해당 경기단체에서는 민원인 진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한 후에 민원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첩, 이첩 해 가지고 문제된 단체에서 그대로 민원을 회신해 주 버리면 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성의가 없는 거지요.

○김장실 위원 그게 문제지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확인하거나 하는 것을, 현장조사라든지 합동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처럼 민원인들이 돌아가시거나 무슨 큰 사건이 생기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팀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난 3년간 경기단체별 심판 비리 처리현황을 보니까 경기단체 56개 중에 3년 동안 신고가 하나도 없는 곳이 무려 53곳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분들은 으레 해 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센터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현장조사라든지 합동조사 이런 것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리고 해당 심판은 보니까 인천

시 태권도협회의 상임심판으로 등록돼 있는데 규정상 타 시도인 서울에서 활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규정을 어기고 서울에서 심판활동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태권도협회에서는 전국심판등록제를 실시해서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심판 혼자서 이런 경기 판정의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심판과 감독이 연계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연계를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심판과 감독 다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력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종합관리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리고 국제대회 때는 전자호구제라든지 영상판독시스템 이런 게 도입돼 가지고 판정상의 문제가 많이 사라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도 단위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장관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다음에 국민 방문기간 중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5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해외 주재 문화원은 외교부 소속이고 현지 공관장 등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사전 준비단계는 문화부 본부에 보고, 협의하도록 하지만 대통령 도착하는 실행단계부터는 의사결정 등 모든 상황처리가 현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해외문화홍보원과 문화부는 사후에 보고받는 식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순방행사를 차질 없이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상외교 행사준비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번 사건처럼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 매뉴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보완할 겁니다.

○김장실 위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보고도 엉망이 되니까 나중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리고 현지 채용요원을 사전교육 하는 것도 보니까 통상 3주 전에 뽑아 가지고 신원조회를 한 후에 일주일 전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준비기간이 짧으니까 주로 업무 위주 교육만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외에 개인적인 요청을 하는 거나 이상한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대응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 외의 개인적인 요청 등 과도한 요구나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는 절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이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교육을 앞으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순서들을 위원님들이 서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순서가 우원식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이 순서로 나가는데 먼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배재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ABC협회에서 조작을 한 게 여러 군데 드러났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장관님 별 것 아닌 것처럼 ‘왜 조작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작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본사를 조사하고 기본자료를 만들고 현지에서 가서 지국들을 한 30군데 찍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결론을 내는데, D일보의 서강지국을 갔는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 하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지국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해서 공사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방문 수급에 대한 수급사항은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철수했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최종확정표에 보면 ‘서강’ 이렇게 해서 1만 9990부를 보고했고 실사 부수는 1만 6000부 그래서 성실률이 80.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지요.

그게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이것은 C일보 신서초, 잠실 이런 데 전혀 조사가 안 됐다, 이것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자료가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모든 신문에 있습니다.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런지를 장관께서는 아까 배재정 위원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잘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요, 제가 모르겠다고 그런 거는 이런 겁니다. 우선 성실률이라고 그래 갖고 자료조사의 정확도를 가령 지국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겠다고 그런 거는 왜 그 것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ABC 공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신문사들이 자기네들이 발행하는 것보다 좀 높여서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편과 관련된 ABC 공사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낮춰서 잡는 게 자기네들한테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통 높이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서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종편 관련해 갖고 20% 이상을 점유해야지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식 위원 그렇지요.

(유기홍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사들이 다 합쳐 봐야 개인 신문사별로는 한 5%~10% 되기 때문에……

○위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종편 조사이기는 합니까만 이 조사가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출하는 미디어영향력지수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도 하고 이 조사에는 이렇게 됐다 저 조사에는 저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식 위원 영향력 있는 신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광고수익을 유지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식 위원 그래서 ABC협회 조사를 잘못 된 거는 늘 감사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해 가면서 하는 건데 아직도 계속 이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문의 광고비가 실제 영향력에 비해서 훨씬 비싸거든요. 이러한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식 위원 최고은 씨가 거의 아사를 해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식 위원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예술인 복지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식 위원 그런데 이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인데, 우리나라 예술인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예술인을 정의하기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식 위원 우리한테 잡혀 있는 통계가 한국고용정보원 기준으로 하면 5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0억, 추경해서 50억, 그렇게 해서 올해가 150억인가 봐요. 아, 100억과 50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100억 플러스 40, 그렇게……

○위원식 위원 예, 그쯤 되는가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식 위원 100억이면 예술인 전체의 얼마를 지원하든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대상은 50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압니다.

○위원식 위원 0.7%입니다. 50억을 추가해도 1%에 미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자가 151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해서 154만 원인데 예술인들 전체의 평균을 보면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문화융성 이렇게 해 왔는데 대다수 예술인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이 문화융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예술인 중에 정규직에 가 있는 사람이 몇 %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술 활동으로는 정규직에 가 있는 사람이……

○우원식 위원 많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우원식 위원 18.3%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27.9%입니다. 그 특성 때문에 정규직에 가 있는 사람이 적다면 괜찮은데 정말 굉장히 열악한 수준, 그러니까 최고은 씨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척박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박근혜정부 4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기조 중에 문화융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뭐가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예술인 복지 관련해 갖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그냥 무작정 늘릴 게 아니라 어떤 생산적 복지와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술강사 보내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하고 연관을 시켜 갖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보통 때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하여튼 마무리하면, 장관님 말씀 좋으신데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복지에 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조사 이런 것 한 적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사항 바깥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뭐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우원식 위원 그런 점에서 좀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고 토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과갑 박인숙입니다.

장관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나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행산업, 도박 또 하나가 의료관광입니다. 도박에 관해서 많이 말씀들이 꽤 있는데 지금 한게임이라고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인숙 위원 한게임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인숙 위원 피해자들의 절규, ‘컴퓨터를 부서 달라’ ‘나를 잡아 가라’ 엄청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에 대하여 장관님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문제는 이거는 합법적인 도박이거든요. 합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놔두서는 청소년들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도박 중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관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규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인숙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나열하는 거는 질문이라는 것보다 장관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챙기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중에 하나가 또 사행산업,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라는 데를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가 봤는데 별로, 많이 액티브(active)하지 않더라고요.

중독예방치유센터에 중독자들이 밝은 대낮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열어서 저녁 5시에, 그것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평일 근무시간에 가서 치유를 받으라는 건데 정신

이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여기 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중독이라는 게 밤중에도 일어나고 24시간 일어나는 일이고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는 아니지만 도박 사이트라든가, 그러니까 도박 그런 사행산업 하는 데에서, 언사이트(on-site) 그 장소에서도 될 수도 있고, 24시간 전화상담도 되고 편하게 정말 치유를 받는 사람을, 이끌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터넷에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가야 되고, 좀 효율적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인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가 있지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고 아까 치유센터하고 또 다른 건데 이것도 결국 도박을 하는 분들을 방지하자 또 치유하자 이런 목적이니까 근본적으로 도박을 안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시끄러운 거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인숙 위원 지금 원장님이라든가 이사장님이라든가 이사 또 설립자들 문제가 많은데 저는 아직 디테일은 잘 알 수가 없고 지금 진행 중이라 말씀 많이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도박을 조장하는 분이 거기 원장으로 가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잘 될 겁니다.

○박인숙 위원 예, 그렇게 잘 되어야지요.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의료관광이 뭐 말할 필요가 없이 국부 창출하고 고용 창출의 제일 좋은 산업인데 지금 이제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난 정부에,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 들어가는 부처가 없거든요. 어디보다도 부처간에 칸막이가 없어져야 되는 게 이것인데 사실이 칸막이 없애는 게 참 어려운데, 한 예를 들면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어려워하는 게, 유치업하고 여행사가 달리 있잖아요.

지금 여행사는 5명 이상의 인원이 와야 되고 4명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체류가 30일 이내입니

다. 그러니까 그 의료관광에서도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또 꼭 4명을 채워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 일은 아니고요, 시행지침을 조금 바꾸든가 융통성이 있게 해서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것도 좀 바꿔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다음에 메디텔이 지금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메디텔이 뭐냐 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호텔업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다 메디텔을 추가하실 것인지 그것 조금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안은 하나 더 메디텔을 추가하는데 그게 정확히 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들어가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인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작이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한국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부처가 다 같이 해서 그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시험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코디네이터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아주 훌륭한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또 이런 자격시험을 만들면 어디까지 할지 그것도 많이 있을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지금 관광객도 많아지고 작년에 3000억이라지만, 온 사람들이 15만 명이 넘는데 앞으로 문체부가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아, 김상희 위원님이 먼저네요.

○박혜자 위원 제가 먼저……

○김상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학용** 박혜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혜자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박혜자 위원**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저는 다른 자료가 없고 제가 지역신문을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의 운영을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을 세워서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와 관련해서 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셔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징 중의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아시아문화원에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그래서 ODA 사업을 맡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문화 쪽에 쓸 수 있는 ODA 사업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은 적습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 갖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대폭 늘려도 예산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을 테고요. 얼마의 예산이 추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로 늘릴 수 있습니까, 문화 분야 ODA 예산을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문화 분야 ODA 예산은 굉장히 적던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필요하면, 그리고 저희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수백억, 뭐 1000억 이상도 쓸 수 있다고……

○**박혜자 위원** 1000억 이상 확보하시겠습니까, ODA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필요하면 그렇게……

○**박혜자 위원**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지금 이것 전부 회의록, 기록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와 관련한 ODA 예산을 1000억까지 필요시에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할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문화전당 운영

하는 데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저희 추정으로는 한 400억, 500억 뭐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박혜자 위원** 그러면 ODA 사업 예산만 확보하면 운영비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ODA 사업 전체를 지금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혜자 위원**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 1000억 중에서, 이 ODA 사업에서 실제로 아시아문화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아시아문화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아시아문화원에 달려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아시아문화원의 원장에게 달려 있을 텐데요. 아시아문화원 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시아문화원장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장관이 임명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장관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임명해서 끌고 나갈 것인지 의의가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 분들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광주 지역에서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영철 전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을 이번에 전시예술감독으로 임명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글썽요, 저희는

이영철 씨가 지금 개발원장보다는 그 사람 전공이 원래 전시이기 때문에 좀 작게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장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꼭 어디에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전시예술감독이든지 뭐가 됐든 꼭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구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잘 아시다시피 그분도 상당히 전시적인 기획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박혜자 위원 그러면 원장 시킬 때는 그런 걸 생각 못 했었고 이제 와서 그분이 원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깐 이제 전시감독을 시켜야 되겠다, 이 건 회전문 인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회전문이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원장만 임명을 했었고요 그 밑의 감독들을 임명을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박혜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영철 씨가 원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이라든가 기획에서……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전시감독은 소통하고 관계가 없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요, 전시 정도의 기획능력은 저희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글썄요 제가 보는 기사들에서는, 제가 기사검색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영철 전시예술감독의 경우에 실제 콘텐츠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으면서도 콘텐츠 개발을 못 했고 콘텐츠 개발을 못 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개관 시기를 지연해야 된다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영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박혜자 위원 틀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지역의 그런 평판은 지금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역의 평판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혜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

자체가 무리가 없는 인사라고 장관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박혜자 위원 원장을 시켰을 때에는 원장의 역할에 부적합한지 몰랐었고 이제 와서 원장의 역할이 적합하지 않아서 전시감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지요 지금, 요약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요약이 너무 요약돼 갖고……

○박혜자 위원 요약이 너무 요약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제가 동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 문제 지켜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가 내 가다 리면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자료를 언제 업데이트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자료……

○박혜자 위원 여기 추진단장님도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김종율 예, 추진단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혜자 위원 그런데 자료 업데이트가 작년 8월 30일로 끝나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김종율 추진단장 김종율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리회사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을 못 한 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은 제가 곧바로 확인을 해서 최신의 자료들이 제대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관심의 문제지요. 얼마만큼 아시아문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항상 버튼 조금 늦게 누르시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뒤에 나와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좁은 자리에서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태권도 불공정 판정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데 오늘 문화부에서 재발방지 대책 몇 가지 발표를 하셨거든요.

심판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인 심판 이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것 안 하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심판등록제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종합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부분부분 나뉘져 있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문화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한태권도협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결과 이력은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과거 불공정 판정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이력사항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책이라고 가져오신 것 자체가 이미 있는 것을 그냥 심화하는 정도를 첫 번째 대책이라고 가지고 오신 게 조금 그렇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편파판정 및 승부조작 방지 등을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이것과 비슷한 위원회가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성공적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 아까 김장실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하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는 짐작하고 있

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일단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스포츠공정위원회하고 유사한 걸로 스포츠 중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3년 동안 중재한 게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8억을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또 무슨 일만 터지면 정부가 흔히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이 위원회 설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태권도 불공정 판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부에서 향후에 해결하겠다고 온 대책,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동의 반복해서 가지고 왔거나 과거에 실패를 했었던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등록은 돼 있었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기록은 돼 있었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 심판들을 가령 등급 분류를 한다든가 배제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해서 그 작업을 하겠다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 경기를 녹화한다든가 스포츠 음부즈맨 제도를 하고 상시 감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 보완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게 저희들의 지금 각오입니다.

○김희정 위원 장관님, 그렇다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심판등록시스템 도입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심판등록제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이라든지 체계적인 정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표현이 좀 잘 못됐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단순하게 표현의 잘못인지 문제인식을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섯 가지 중에 제가 일단

두 가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전자호구 전체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전자호구 부분은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태권도 쪽에서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그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정 위원 태권도, 올림픽 핵심종목 채택이 이번 여름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2013년 9월 IOC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최종결정이요.

○김희정 위원 중요한 평가 중의 하나가 경기 진행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태권도 중주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 공정하게 경기 진행과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편파판정 시비를 없애서 향후에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데도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위안부 기록물, 오늘 문화재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 일기라든지 프놈펜의 뚜얼슬랭 학살기념관 기록이라든지 뉴그라나다 지역의 흑인노예 차별 기록물이라든지 버뮤다의 노예등록부 등 그러니까 인류역사에 있어서 심각한 해악을 끼친 기록들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조를 해서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장관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최근 정부가 공약가계부 발표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은혜 위원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해서 5월 31일 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문화재정 2%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문화보조사업을 1500개에서 500개를 일괄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은혜 위원 그 기준과 어떤 평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만 그동안 1500개 진행됐던 문화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평가가 지금 각계에서 되고 있고요, 종합적인 평가는 저희 각 실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언제까지 이 평가를 끝내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가급적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그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기가 짧아서요. 그런데 내후년 예상……

○유은혜 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 1500개 평가와 관련해서 500개 일괄적으로 줄이는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은혜 위원 그리고 제가 공약가계부에 보니까 예산에 대한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투자가 가장 많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공약가계부 전체에 대해서?

○유은혜 위원 아니요 아니요, 문화재정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쪽에서는 국민들 수요층에 지금 중심이 돼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보니까 문화콘텐츠사업에 1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공약가계부 SOC 분야 추진전략에 보니까 ‘민자사업, 문화교육 부분 시설투자 확충 등을 통해서 건설산업 실질 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결국은 문화재정 2% 그리고 고등교육 예산 GDP 1% 투자를 통해서 시설투자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면 박근혜정부에서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것인가 의문을 좀 갖게 되고요.

그래서 문화융성이라는 구호가 각종 지자체나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줄여서 콘텐츠산업이나 SOC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고요, SOC는 최소한도로 줄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유은혜 위원** 그런데 보니까요 메디텔 도입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사행산업 규제 완화, 그래서 결국 문화 체육 관광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경향으로,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산업은 일자리 하고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시설을 새로 고친다든가 그런 건 최소한도로 줄일 생각입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진정한 문화융성이라고 함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문화격차 해소 문제라든지 지역문화 발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유은혜 위원**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문화융

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기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감지되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1960년대식, 여태까지의 성장주의나 국가주도형 문화개발 이런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문화융성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추가하면 앞서 태권도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태권도가 도와 예, 인성 교육이라고 해서 어린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기라고 불리워지는 종목인데요, 정말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를 느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태권도만이 아니라 스포츠계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고맙습니다.

한라장사 두 번이나 지낸 씨름선수나 또 권투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선수들이 빗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 챙겼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그리고 계속해서 승부 조작이나 성폭행 문제나 또 대학의 부정입학 문제나 이런 스포츠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우선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잘못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유은혜 위원** 차제에, 그러니까 태권도 관련한 오늘 말씀하신 이런 대책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른,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포츠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행이나 악습이라는 이유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도종환 위원 장관님,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장관님 취임 전후해서 50억을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추경에 또 50억 가까이 마련하고 그래서 200억 가까이 이걸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도종환 위원 문화부에서도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그러고요.

이번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첫 번째 사업을 예술인창작디딤돌 1차 사업, 첫 번째 사업을 했어요. 신청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걸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 180명을 지원하려고 응모를 받았고 또 창작전환기 지원에도 180명 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100명 이렇게 지원하려고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자가 창작전환기 지원, 그러니까 창작활동을 한 지 한 25년 된 사람들, 그런 신청한 사람이 66명이었어요. 결국 심의해서 지원한 사람은 35명이었고요.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100명을 주려고 그랬는데 17명 신청했고요 겨우 11명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준비금 지원을 하려고 했던 180명, 이쪽에 지원한 신청자 쪽에 180명 주려다가 336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홍보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사업 자체에 대한 또는 복지재단 자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어보니까 초기라서 어려움도 있고, 저도가 봤어요 직접.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험, 마인드, 노하우 이게

다 필요한데 이런 것도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정착이 안 됐고 부족한 것 같아요. 신문에도 홍보했다고 하고 방송에도 홍보했다고 하고 지하철에도 홍보했다고 하고 다 홍보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한 사람들의 65.2%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고요. 또 장르별로 보면 시각예술 쪽이 거의 50% 가까이, 49.8%가 시각예술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은 또 소외됐고요, 여기서도. 또 소외된 장르가 있고 장애를 갖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도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써서 어렵게 어렵게 돈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사업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또 서류 같은 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노인들·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소득 관련 증명, 소득금액 증명발급을 받으러 세무서 이런 데 가야 되고 또 4대보험 가입내역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최소한 이걸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할 때 신청서를 내면 예술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는 이걸 재단에서 서류를 갖추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차원의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번 몇 명한테 이런 것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한 1040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2차 사업 할 때는 그러면…… 이번에 예술활동 증명을 한 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한 1049명 정도, 6월 7일까지 지금 활동증명 승인받은 사람 숫자가 17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술인 전체 수십만 명 중에서요. 그러면 또 2차 사업에도 1700명 정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지켜보고 제대로 진행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예술인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받고 또 수요 파악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 지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쭙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문화예술위원회 예산은 한 13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창작지원 쪽 예산은 2012년은 148억에서 136억, 136억에서 이번에는 121억 이렇게 해마다 점점 줄었어요.

문화예술 진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술인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창작 지원을 통해서 예술을 진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문화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차제에 복권기금이 전입되어 와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향유 쪽에 쓰다 보니까 창작사업 쪽에는 못 쓰이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 쪽에는 이게 또 법정배분사업으로 지정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도종환 위원** 그래서 우리 문예진흥 쪽에도 이쪽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창작 지원 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복권위원회 복권 성격상 창작 지원 쪽보다는 주로……

○**도종환 위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주로 쓰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소외자 지원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도종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창작 지원 쪽에 쓸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장관님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창작 지원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창작 지원 쪽

은 국고 지원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김상희입니다.

장관님, 이번 윤창중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보면 전혀 뭐라 그럴까, 너무 심각한 반성이라든가 또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지나치게 민감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파면이 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직권해임, 직권면직이 됐지요.

○**김상희 위원** 그다음에 홍보수석이 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안을 보면 미국의 워싱턴 문화원인가요, 문화원장의, 문화원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부나 또 문화원에 별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한번도 장관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든가 뭐, 그런 언급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는 오늘 이 보고에서도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도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저희 공식적인 문서에 담기에는 저희가 너무 파악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랬고요.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김상희 위원** 예,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각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지금 수사 중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부에서 전혀 그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꼼꼼하게 다 리뷰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에서, 문화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자료로 제공됐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기존에 있는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정상 외교 행사준비 매뉴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상희 위원 이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왜 우리 문화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매뉴얼에 보면 ‘기자들이 만찬 합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 행정실과 협의해라.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팔호 하고 ‘절대 음주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각 실에서 음주를 요청할 때는 행정실과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매뉴얼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대로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 문화부에서는 그런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하신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게 참……

○김상희 위원 그 이후를 얘기하는…… 저는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장관께서 이것을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확인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확인을 저희 부가……

○김상희 위원 제가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 말씀드리면 또 안 된다고 그러서 가지고……

○김상희 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적어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 국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미국에서 스스로 사표를 낸 여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턴 직원 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상희 위원 그 여직원이 이 관련해서 문화원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취했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 피해가, 피해자가 2차 성추행이 있는 이후에 문화원 관계자와 윤창중 전 대변인이 호텔방으로 찾아와서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때 이 여성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신고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1차 성추행 발생 이후……

이것 좀 넣어 주시지요.

1차 성추행 발생 이후에 이것을 인턴 직원이 이 여직원하고 의논했고 이것을 문화원에다가 얘기했는데 문화원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2차 성추행 이후에 호텔방으로 윤창중하고 함께 와서 면담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2차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매뉴얼을 우리 여직원은 숙지를 하고 이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문화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2차적으로 이 여성

들에게 와서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사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자세한, 윤창중이 그 여성에 대해서 성추행한 사실을, 수사에 관계된 사항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문화원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어떤 자료도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고요. 그 부분은……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했는지, 안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매뉴얼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턴 여직원이 이 사실을 문화원 여직원하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문화원에 직원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한 건데 문화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가 있었을 때 호텔로 찾아와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피해를 준 것입니다. 무마하려고 하는 2차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부가 전혀 이것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우선 매뉴얼……

○김상희 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신학용 자, 김상희 위원님, 충분히 설명됐으니까 답변 듣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까 위원님 안계실 때 제가 답변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저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워싱턴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령 신문에 나온 거라든가 위원님께서 즉 시간별로 얘기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이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람들 말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또 언론에 나온 것도 저희가 서로 사건의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밝히는 게, 더구나 수사·조사 중인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

○김상희 위원 실질적인 이 성추행 사건과 관계 없이 문화원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정부에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실은 앞으로의 이런 2차, 다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지적절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직원이 왜 사표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장관이 파악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위원장 신학용 예,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수사 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런 그런 보고도 안 하는 것은……

○위원장 신학용 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저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장의 책임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사건 경위가 다 밝혀지면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화원 내에서 하는 얘기와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밝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사과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입니다.

오늘 음악저작권 신탁 복수 체제 관련해서 질의도 좀 있었고 또 이것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요. 저 또한 기본적으로 복수 체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에게 저작권 시장을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열어 주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모종의 각본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서 접수 결과 봤더니 네 군데 모두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이사 구성부터 조직 운영까지 이 비영리법인은 결국 영리법인에 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입 전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키운 데는 저는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문체부의 검토 의견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진입을 포함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의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정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 때문에 결국은 이 복수 체제의 선정이 영리법인, 즉 방송사나 대기업에게 저작권 시장을 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게 의혹을 가지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의혹이라면 지금이라도 영리법인은 결코 안 된다, 앞으로 법 개정은 없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영리법인의 진입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지금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튼 저희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아니면 아마 여야 간에 이 복수 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체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흥근 위원 그러면 문체부가 영리법인의 진입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감자 이것을 안고 이 문제를 서둘러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6월 말까지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영리법인이 만든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고하는 방안까지 저는 검토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영리법인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도 늦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영리법인이 저작권집중관리업에 진출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저작권의 공익적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그게 이미 진출하기 전부터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매장음악 아시죠? 이 매장음악에 대한 저작권 징수 기준을 문체부가 지금 설정하고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흥근 위원 현행 법령에 의해서 그동안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여기에만 적용됐던 저작권료를 연 매출 규모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저작권 납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작권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흥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좁혀 주는 역할입니다.

○박흥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 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납부 대상 기준을 검토하면서 연 매출액으로 하겠다라고 정하신 것 같고, 1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지금 4800만 원 정도로 최종 확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가면요 나중에 이 법이 개정될 경우에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느닷없는 폭탄을 맞게 됩니다.

현재 지금 개인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 5000만원에서 1억 미만 사업체가 한 46만 개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체에게 만약 저작권료 지불이 같 경우에 연 50~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기 바쁜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취지 충분히 잘 알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가 알려 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제가 오늘 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난번 스타벅스 코리아 판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음원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판매용 음반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이걸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그동안 계속 ‘온라인 음원까지도 판매용 음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면 결국은 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세금, 저작권 폭탄 이것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그러면 결국 ‘영리법인들 진출하게 하려고 사전 포석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지금 3000㎡ 미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음원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 버리면, 법 개정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

기다가요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예외조항, 그러니까 3000㎡ 미만의 매장 음악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음저협이 현재 이런 소형 매장 곳곳에 공연사용료 내라고 지금 실제 징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이것은 예외조항인데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음저협에게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과태료도 부과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이런 온라인 음원을 결국은 새롭게 규정을 해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풀면요 전혀 문제없이, 우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담당 과장을 보내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판결이 스타벅스 판결하고 현대백화점 판결하고 묘하게 얽혀 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방향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을 빨리 보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굉장히 경청을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처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안질의에 임하는 우리 장관님, 그리고 문체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윤창중 대변인 건에 대해 사실 국기를 뒤흔들 정도의, 그리고 정상외교의 이면에 이런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위싱턴 한복판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과연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장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문화원장뿐만이 아니라 문체부 전체가 저는 직무유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 보지요.

매뉴얼에 따르면 어떤 그런 매뉴얼에 어긋나는,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방으로 부르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때 행정실에 의논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 의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면 매뉴얼 교육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렇게 경찰에 가서 신고할 정도의 상황까지 됐는데 왜 행정실에 의논조차 안 했을까요? 도대체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뭐……

○**유기홍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기자들은 만나면서 왜 문화원장, 문화원하고는 접촉을 안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그리고 한가하게 ‘그 직원들이 우리 문화원하고는 안 만나려고 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음악저작권협회 관련해서 장관 답변하신 데 대해서도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4월 22일 날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현행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는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나 대기업

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 이런 보도자료 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비영리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놔다는 것은 영리단체의 참여나 이해관계에 침해하게 얽힌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 못 하게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인데, 어떻게 영리단체가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걱정 하나 없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법의 해석에서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기홍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기홍 위원** 이것은 상식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비영리단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여기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방과후학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것을 비영리단체만으로 한정되게 만들어 놔습니다. 거기에 대교나 웅진 같은 데들이 참여하려고 하지만 막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영리단체가 자기들이 비영리단체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을 법 해석상 막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

○**유기홍 위원** 복수화에 대해서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 우려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갈지가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강 건너 불같이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대기업이나 그리고 방송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답변에 지금 그 단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그러면 복수화해라 하고 동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기홍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체부에다가는 동의를 해 놓고 나서 지금 반대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결국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할테면 해 봐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복수화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관계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누가 다른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복수화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저작권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 김기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단체를 복수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음저협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개선 요구한 사항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라는 문제였고 두 번째가 저작권 신탁범위선택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문경영인 도입이 무산됐었고 그다음에 저작권 신탁범위선택제를 하라고 했을 때 음저협에서는 신탁범위선택제보다는 차라리 단체 복수화를 받아들이는 게 낫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리단체가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식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 식의 편법이 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켜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페라합창단 문제도 인사청문회 때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기홍 위원**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 오페라합창단이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의 며느리가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김정현 문화예술위원장 쫓아내고, 황지우 총장 쫓아내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체시켰던 거예요. 이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하셨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국립합창단 정원을 늘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들 많으십니까?

두 분?

많으면 정회하려고 그러지요.

오케이. 그러면 두 분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딱 두 분인데, 오늘 워낙 시간 모자란다고 하고 마지막 두 분인데 5분씩.....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대신에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얘기가 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비리까지, 사업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언론에서 본 정도입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지난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주변에, 강변에 운동장 설치를 하는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3년에는 강변 운동장에 2개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운동장 상세주소를 가지고 찾아 봤더니 자그마치 8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8개를.....

○**김상희 위원** 8개의 운동장, 그러니까 2개라고

그랬는데 8개의 운동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에 3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금까지 보면 총 110억 원의 수변 운동장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다 싶은데, 잘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말씀 계속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이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사실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 예산은 학교 체육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려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29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요나 긴급한 수요에 해당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런 예산을 수변공원 만드는 데 쓴 겁니다, 110억이나.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도 위원님 말씀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마는 체육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상희 위원 그래서 2013년에 31억 원이고요. 자료 자체를, 말하자면 잘못된 답변까지 보내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가, 4대강 주변에 수변운동장 지원을 계속 문체부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강변 독 외의 운동장은 국토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상희 위원 4대강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수변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다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4대강 사업을 말하자면 성공시키기 위해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문화부 예산이 앞으로 또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2012년, 2013년 예산 중에서 4대강 사업 홍보와 수변관광 활성화 사업 등 이런 간접적인 지원 있잖아요? 관련해서 다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운동장 관련해서도 저는

이것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

그리고 이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도 편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한번 가서 이것을 다시 점검하시고요.

올해 31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편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중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편법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요, 전체적인 방향을……

○김상희 위원 지켜보시지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수변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조사해서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4대강 사업 홍보와 수변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메디텔 허용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윤덕 위원께서 아까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도 입법예고 이것을 10일간만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메디텔 설립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을 어기고 15일만에 입법예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절차법을 어기는 게 거의 습관처럼 되어 계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여기도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뭐……

○박홍근 위원 입법예고를 하면서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지요,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추진하셨지요.

법률안 개정까지 해야 될 상황이면 응당 이 법을 고쳤을 때 정책적인 타당성, 기대효과 이런 것 다 분석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합니까? 어떤 종합적인 검토나 분석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나 추진 과정도 느닷없고 매우 설익지만 저는 메디텔 문제가 자칫 의료민영화 문제와 결부돼서 큰 그림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문체부가 잘못 앞장서서 추진하다가 말 그대로 악마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보험업체들에게—유치업자들이 될 텐데—허용 다 할 것이고,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또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경험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현재 포커, 고스톱 등 웹보드게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이 사행화가 ‘제2의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지난 5월 31일 게임산업협회가 일방적으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지난 12일 초청 토론회에서 배팅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의지를 밝히신 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결국 게임산업협회의 자율 규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규제를…… 사행산업 규제의 핵심은 뭐니까? 불법 환전의 고리를 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러면 1회 배팅금액 이것의 한도를 정하는 것, 그렇지요? 그다음에 본인인증제를 하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필수 요건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런 규제에 대해서 게임산업협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칫 이 방향으로 간다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 될 텐데요.

그런데 애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고시 제정 방침을 가졌다가 자율 규제로 전환을 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자율 규제로 저희가 전환한 것은 아니고요. 게임산업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율규제안을 마련해서 올 테니까 존중하고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규제하는 게 우선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지금 게임산업협회장이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자율 규제 방침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것을 고려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쪽 요청은 아니고 게임산업계 쪽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요.

○박홍근 위원 그러면 업체의 요청이 있어서 기다렸지만 지금의 자율규제안은 수용할 수 없으니 결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진짜 이 문제는 말씀처럼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체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체부가 아까 말씀드린 1회 배팅한도 또 본인인증 이 규제안으로 확실하게 관철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이 부분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가 문화원 업무와 관련해 갖고 포괄적인 지원과 지휘·감독 권한이 있습니까라는 현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외교공관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러한 순방과 관련한 때에는 CP가 만들어져서 거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인사관리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같은 것은 대사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해외홍보원장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2009년 감사원이 해외 문화원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직접 감사를 하라는 권고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 2012년도에도 안 했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11년·12년에 안 하고 저 오고 나서 보고받고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직급이 굉장히 높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직급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신학용 아니, 미국 워싱턴 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워싱턴 문화원이 3급…… 예, 고위공무원단.

○위원장 신학용 너무 높기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서면질의 할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 신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강은희 위원

님, 김희정 위원님 그리고 신학용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유진룡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강은희	김상희	김세연	김윤덕
김장실	김태년	김희정	도종환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서상기	신학용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이균현
이에리사	이용섭	정세균	정진후
현영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박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차기획조정실장	관	서나성	남승삼	수일제
교육정책실장	관	심	은	석
대학지원실장	관	박	백	범
정책기획관	관	정	종	철
학교정책관	관	김	영	윤
창의인재정책관	관	김	성	기
대학정책관	관	박	춘	란
지방교육지원국장	장	정	병	결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기획조정실장	관	유	진	룡
제1차관	관	조	현	재
제2차관	관	박	종	길
기획조정실장	장	최	규	학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장	원	용	기
문화정책국장	장	나	중	민
예술국장	장	김	태	훈

관 광 국 장	신	용	언
도 서 관 박 물 관	김	성	호
정 책 기 획 단 장	노	태	강
체 육 국 장	박	영	국
미 디 어 정 책 국 장	김	종	윤
아 시 아 문 화 중 심	김	낙	중
도 시 추 진 단 장	송	수	근
정 책 기 획 관	김	기	홍
콘 텐 츠 정 책 관	박	위	진
저 작 권 정 책 관	한	기	봉
홍 보 정 책 관	심	장	섭
홍보콘텐츠기획관	우	진	영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출석 참고인

- 문용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조효숙(영훈초등학교 교장)
- 정동식(영훈중학교 교장)